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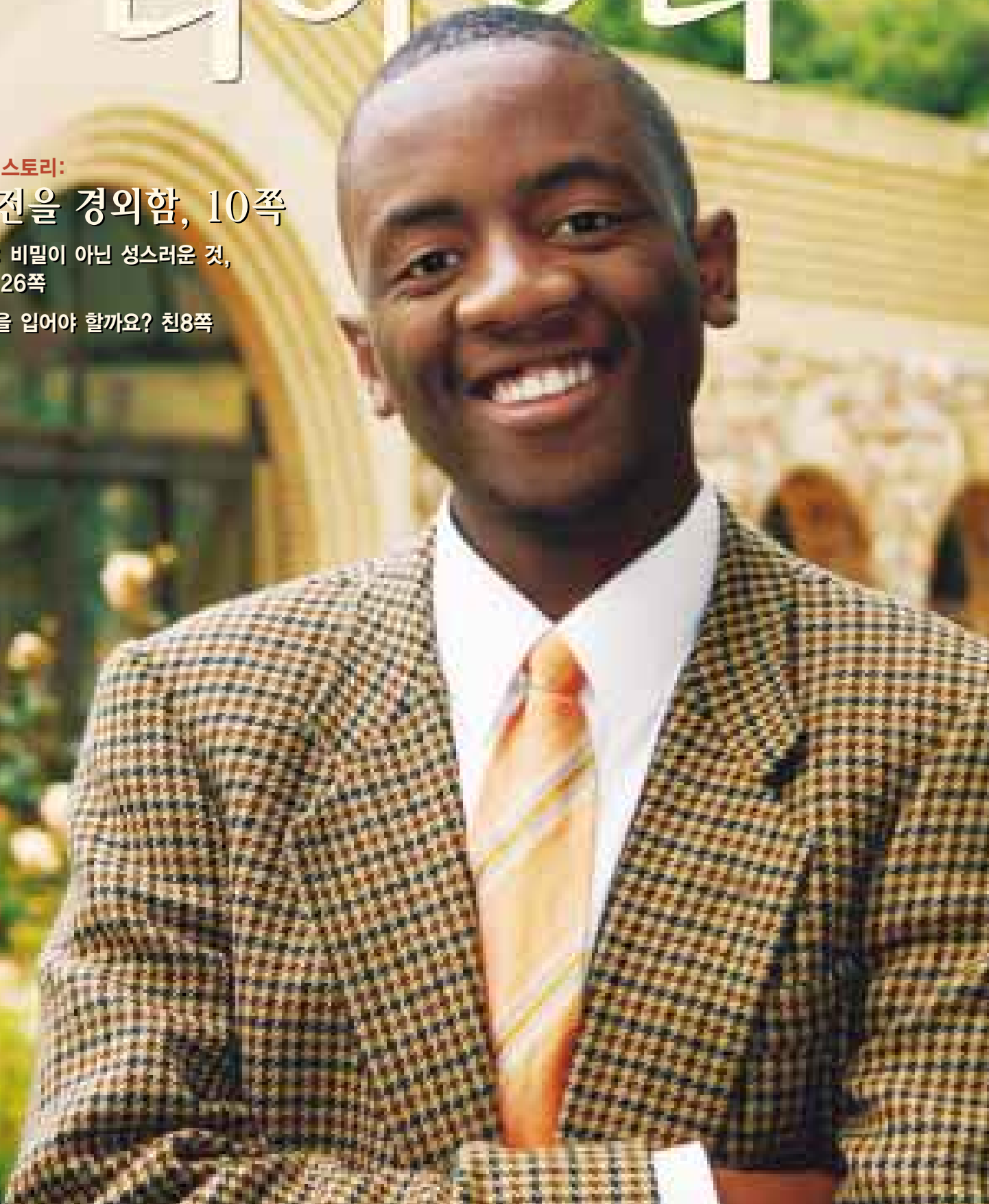
리아홍나

커버 스토리:

성전을 경외함, 10쪽

상징: 비밀이 아닌 성스러운 것,
14, 26쪽

무엇을 입어야 할까요? 친8쪽





마 음과 정신의 평화, 봉사를 통해 오는 기쁨, 자신감,
즉 성전 봉사를 통해 오는 축복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이 청남 청년들의 얼굴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들은 이 거룩한 집의 신성한 본성과 영에 대한 확고한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 자신과 주님의 성전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성전을 경외함,” 10쪽 참조.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공식 잡지임

제일회장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사도 위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라셀 벨러드, 조셀 비 윌슨, 리처드 지 스퀴트, 로버트 디 해일즈, 제프리 알 홀린드,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편집인: 제이 이 젠슨
고문: 게리 제이 콜먼, 요시히코 기쿠치, 제럴드 앤 렌드, 더블류 더글라스 성웨이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스네호트

편집 책임자: 비터 디 케이브

선임 편집인: 래리 힐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 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공동 편집인: 라이언 카, 아담 시 울슨

보조 편집인: 수잔 배렛

편집 스태프: 린다 스칼 쿠퍼,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라렌 포터 곤트, 캐리 카스텐, 멜빈 레빗, 엘리사 메릴, 샐리 제이 오데커, 주디스 엠 팔러, 비비안 폴슨, 리처드 엠 롬니, 제니퍼 로즈, 크리스티 루쉬, 돈 엘 셸, 잭슨 토마스, 폴 밴덴버그, 줄리 웨일, 킴벌리 웰

선임 비서: 오니카 엘 디킨슨

마케팅 부장: 래리 힐러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엘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킵 밴 캄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타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칼리 알 아로요, 클레트 네베커 오온, 브리트니 존스 린,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텐슨, 캐슬린 하워드, 에릭 피 존슨, 드니스 커비, 랜달 제이 픽스톤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워크

배부 책임자: 크리스 티 크리스텐슨

통 권: 제 491호, 제 44권, 제 2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7년 2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운환

편집인: 정동환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외드/자부외 변경된 주소로 배부과☎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E-mail: liahona@ldschurch.org**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벨루지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하이티어, 헝가리어, 힌디어(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 2007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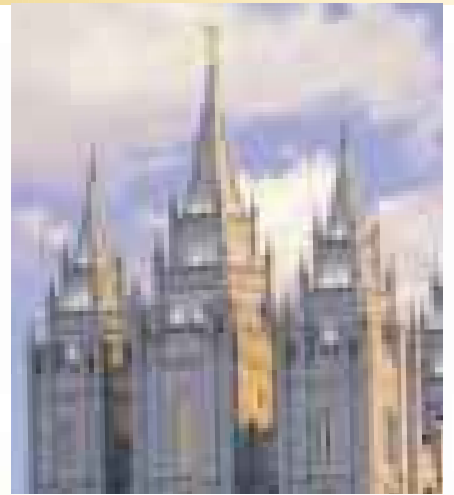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February 2007 No. 2.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성인

- 2 제일회장단 메시지: 영감을 주는 생각을 고든 비 힝클리 회장
- 14 왜 상징을 사용하는가?
- 20 성전이 가져다주는 감미로운 평화
- 25 방문 교육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강화함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됨
- 26 선한 사마리아인: 잊혀진 상징물 존 더블류 웰치
- 40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안네 그렌체바흐*
- 44 후기 성도의 소리
마지막 순간의 변화 *재키 오먼*
귀뚜라미를 기억하여 *데니스 버크스*
한 사람에게 한 양동이씩 *제임스 더블류 리치*
- 48 애독자 편지



14 왜 상징을 사용하는가?

44 귀뚜라미를 기억하여



표지
사진 촬영: 폴 밴덴버그
친구들 표지
삽화: 매튜 스미스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다음 제언은 밤이나 가정에서 가르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경외함”, 10쪽:

성전 사진 한 장을 보여 주고 그론월드 회장이 설명한 성전의 네 가지 위대한 축복을 나눈다.

성전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지 토론한다. 가족 각자가 성전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목표물을 나누게 한다.

“선한 사마리아인: 잊혀진 상징물”, 26쪽: 비유는 거룩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지상의 물건과 경험을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복습하고 웰치 형제가 설명하는 추가적인 의미를 설명한다.

가족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여러분을 도우셨는가?
교회는 어떻게 여러분을

보살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이와 같이 할 수 있는가?

“삶의 지침이 될 열 가지 원칙”, 34쪽:

열 가지 원칙이 적힌 종이쪽지를 준비하여 가족에게 나누어 준다.





복사 금지

스피커즈 코너, 하이드 파크, 1934~1935년, 존 메이슨

고든 비 힝클리 장로가 런던의 하이드 파크 공원의 스피커즈 코너에 모인 군중을 가르치고 있다. 힝클리 장로는 1930년대 중반 대영제국에서 훌륭하게 선교 사업을 했으며, 마침내 유럽의 모든 선교부를 감리하는 교회 사도의 보좌로 부름 받았다.

이번 호에 숨겨져 있는 정의만 반지를 찾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도록 도와주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경전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

- 7 포스터: 성공을 위한 웃입기
- 8 엄마의 냉장고 *엠마 이 산체스 산체스*
- 10 성전을 경외함 폴 벤턴버그
- 22 질의응답: "친구가 정말 우울해하고 있고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 34 삶의 지침이 될 열 가지 원칙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 43 아이디어 목록: 사이좋게 지내기

34 삶의 지침이 될 열 가지 원칙



가족에게 한 가지 원칙을 읽게 하고 그것이 어떻게 삶을 인도해 주는 지침이 되는지 토론한다. 혹시 그들이 추가할 수 있는 원칙이 있는지 묻는다. 기사의 마지막 네 단락을 읽음으로써 마친다.

"쉬츠 감독님을 지지함", 친12쪽: 가족 한 명에게 양팔을 뻗고 서 있게 한다. 각 손에 점차적으로(예를 들어 양손에 책들을 겹쳐 놓으며) 무게를 더한다. 무게가 늘어날 때 다른 가족으로 하여금

팔을 지탱하는 것을 돕게 한다. 누군가를 지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질문한다. 쉐라가 그녀의 감독을 어떻게 지지했는지 가족들이 알 수 있도록 이야기를 읽어 준다. 여러분의 가족이 감독 또는 지부 회장을 어떻게 지지할 수 있는지 목록을 작성해 본다. 가족으로서 감독 또는 지부 회장에게 가져다 드릴 것(쿠키, 감사 편지 등)을 함께 만든다.

어린이: 친구들

- 친2 와서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라:
성스러운 빛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
- 친4 함께 나누는 시간: 신앙으로
주님 따르리
엘리자베스 리스
- 친6 스펜서 더블류 김볼의
생애에서: 살았다!
- 친8 무엇을 입어야 할까요?
제니퍼 로즈
- 친10 주 예수를 닮으려고
놀라운 일들
*오거스토 비,
싸움은 안 돼 앨런 에스.*
- 친11 색칠하기
- 친12 쉬츠 감독님을 지지함
셀라 킨드레드
- 친15 특별한 증인: 어떻게 하면 경전에
대한 간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친8 무엇을 입어야 할까요?

이번 호의 주제들

친-친구들	선교 사업, 40, 45, 친2, 친10쪽
가르침, 6, 8, 44쪽	선택의지, 34, 친8쪽
가정 복음 교육, 6쪽	성전, 10, 14, 20, 34쪽
가정의 밤, 1쪽	속죄, 2쪽
가족, 8, 40, 43쪽	스펜서 더블류 김볼, 친6쪽
간증, 2, 14, 20, 25, 친15쪽	시련, 34, 40, 친6쪽
개종, 40, 45쪽	신권 지도자 지지, 친12쪽
경전 공부, 친15쪽	신앙, 친4, 친11쪽
기도, 44, 46쪽	예수 그리스도, 2, 25, 26, 친4, 친11쪽
다툼, 43, 친10쪽	우울증, 22쪽
모범, 2, 친2쪽	우정, 22, 43, 친10쪽
목표, 34쪽	자살, 22쪽
방문 교육, 25쪽	자애, 26, 친12쪽
복장, 7, 10, 친8쪽	재정, 34쪽
봉사, 46, 친2쪽	초등학교, 친4쪽
비유, 26쪽	평화, 20쪽
상징, 14, 26쪽	
상호부조회, 25쪽	

영감을 주는 생각들



여러분 각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원한 진리에 대한 증인으로 설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책임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에 대한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간증

“여러분에게 저의 간증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심을 압니다. 그분은 우주의 위대한 통치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며, 그분은 어떻게 해서든 그분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늘에 있는 그의 고귀한 집을 떠나 인간들 사이로 오셨고, 사람들의 미움과 멸시를 받으며 선한 일을 [사도행전 10:38 참조]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인간들의 증오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사흘 만에 일어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20)가 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소년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륜의 시대인 이 놀라운 경륜의 시대로 그를 인도하셨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한국 서울, 회원 모임, 2005년 7월 31일)

우리를 위한 그분의 희생

“저는 구주의 속죄에 대한 간증을 갖게 해 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 구주의 속죄를 믿고, 그것을 위해 살며 오늘 그것에 대한 간증을 드립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사건 중 그 의미나

결과에서 구주의 속죄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신 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위한 그분의 희생에 대해 감사드려야 합니다.”(덴마크, 코펜하겐, 회원 모임, 2004년 5월 22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

“우리는 사랑과 신앙으로 단합하여 묶인 위대한 가족입니다. 백성들로서, 개개인으로서의 우리의 축복은 위대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명에 대한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확신을 마음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분은 구약의 위대한 여호와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아버지의 지시 아래 그분은 만물을 만드셨으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 (요한복음 1:3)입니다. 그분은 약속된 메시아로서, ‘날개 아래 치유하는 힘을 갖고’ (말라기 4:2) 오셨습니다. 그분은 기적을 행하신 분이셨으며, 위대한 의사였으며, 부활이요 생명이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 받을 유일한 이름입니다.[사도행전 4:12 참조]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



“그분은 정복당한 나라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기 위해 높은
보좌를 떠나 이 지상에 오시도록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분은
팔레스타인의 먼지투성이 길을
걸으셨으며, 병자를 고치고
교리를 가르치며, 그분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

“그분은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
각자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것은 부활과
영생의 은사입니다.[교리와 성약
14:7 참조]

“우리는 그분의 탄생을
영예롭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이 없었다면 그
탄생은 단지 또 하나의 탄생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갯세마네 동산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은
구속이었으며, 그것은 그분의
은사를 불멸의 것으로, 또한
전인류적이며 영원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구속은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위대한
속죄였습니다.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20)였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모든 인류는 무덤에서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을 공경합니다.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을 숭배합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와
모든 인류를 위해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구주이시며 세상의 구속주이시고,
모든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로서 바쳐진 흠 없는 어린양인,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들을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선교사 영적 모임, 2002년 12월 15일)



우 리는 대단히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평화와 복지는 주님의 길을 걷는 가운데
찾을 수 있습니다.

대한 증인으로 설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책임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에 대한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케냐,
나이로비, 회원들과의 만남, 2005년 8월 4일)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평화

“우리는 대단히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많은 문제들로 근심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평화와 복지는 주님의 길을 걷는 가운데 찾을 수

증인으로 서십시오

“저는 오늘 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자신이
가졌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던
중요한 때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을
보았고 그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땅에
엎드려 ‘주여 누구시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 ,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
하리라.’(사도행전 26:15~16,
18)

“저는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명령이 우리 각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여러분 각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원한 진리에

있습니다.”(호주 스테이크 대회 위성 방송,
2005년 2월 12일)

성전에 참석하기 위해 합당함

“저는 모든 아버지와 남편에게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성전에 가기에 합당한지 보라는 도전 과제를 드립니다. 그것을 대신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부부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회개할 필요가 있으면 오늘 시작하시고 성전 추천서를 받기 위한 자격을 갖추십시오.”(칠레 산티아고, 회원 모임, 2006년 3월 11일)

의로운 삶의 모범

“우리는 선한 사람들, 친절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 주위 사람들에게 다가가 기꺼이 도움을 주고 축복하는 사람들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우리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의롭게 살며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보답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미국 유타 주 세인트조지 스테이크 대회, 2005년 2월 27일)

더 높이 서십시오

“부도덕하며 문제 많고 타락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위로 일어나 더 높이 서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십시오. ...

우 리는 좋은
사람들, 기꺼이
다가가서 돕는
사람들로 인정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줄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된 본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4세기 고대의 니케아 신조에 아직도 묶여 있으며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지자 조셉의 첫번째 시현을 통해 온,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으며 그분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참된 본성에 대한 그 어떤 의심도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경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한복음 17:3)

“우리가 세상에 주어야 할 위대하고 놀라운 은사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이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국적이 무엇인지는 상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곳도 상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색깔이 밝은지 어두운지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눈 모양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이 우주의 위대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가 기도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제가 알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 이 얼마나 멋지고 놀라운 일입니까.”(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회원 모임, 2005년 7월 31일)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나가서 이 사역을 전파하십시오. 교회가 조직되기도 전부터 이 교회에 주어진 첫 번째 의무는 나가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의무는 거두어들여진 적이 없습니다. 그때 이후로 내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컬럼비아, 선교사 모임, 2004년 11월 20일)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축복을 주고 계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위대한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그분께서는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경륜의 시대의 권능과 영광과 진리와 권세로 그분의 사역을 회복하셨습니다. ...

“저는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예수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속주이시며,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님, 우리의 친구이심을 압니다. 조셉 스미스는 선지자였고 지금도 그러하며, 이 교회는 참되고, 우리의 축복과 행복을 위해 지상에 회복된 그분들의 사업임을 압니다.”(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지역 대회, 2003년 5월 4일)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 메시지를 나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가족에게 구주에 대한 첫 번째 세 항목에서 각각 한두 단락을 소리 내어 읽게 한다. 가족에게 주님과 그분의 희생 및 사명에 대한 느낌을 나누게 한다. 또한 여러분 자신의 간증을 전한다.
2. 가족과 함께 히클리 회장님의 말씀에서 도전 과제가 들어 있는 항목을 나눈다. 가족에게 선지자께서 주신 각 도전 과제가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고 파악하게 한다. 가족이 함께 달성할 도전 과제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한다.
3. 기사에 있는 그림을 가족에게 보여 준다. 그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묻는다. 그림과 관련된 히클리 회장님의 말씀을 읽는다. 여러분의 간증으로 마친다.

성공을 위한 옷입기



나쁜 선택 때문에 실족하지 마십시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2001년], 14~16쪽 참조)

엄마의 냉장고

우리 어머니는 이상하게 생긴 노란 냉장고를 우리를 어떻게 가르쳤을까? 어머니는 그 냉장고를 통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 주셨다.

에마 이 산체스 산체스

나는 어머니의 장례식 동안이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며칠 동안에도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본 기억이 없다. 아버지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야 할 책임을 맡으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매장식 후 어느 날 밤, 나는 아버지가 오래된 냉장고 앞에서 어머니가 냉장고에 붙여 두셨던 것들을 보며 흐느끼는 모습을 보았다. 냉장고는 어머니의 삶에 대한 기억으로 뒤덮여 있었다.

부모님은 결혼하실 때 중고 냉장고를 사셨다. 어머니는 내가 다른 어떤 냉장고에서도 본 적이 없는 이상한 노란색으로 냉장고를 칠하기로 하셨다.(어머니는 결국 바닥과 다른 가구들, 그리고 새 옷 한 벌에도 페인트를 묻혔다.) 그러나 우리는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새로운 부품으로 갈기 위해 어머니가 냉장고에 붙어 있던 것을 모두 떼어 내셨을 때에서야 비로소 그 이상한 노란 색깔을 볼 수 있었다.

어머니는 신문에서 오린 만화나 잘 알려진 격언, 아버지의 그림, 암기할 성구, 세탁소 카드, 상품 광고, 답해야 할 편지, 영수증, 쇼핑 목록, 와드 전화번호부,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성적표까지 모든 것을 냉장고에 다 붙여 두셨기 때문에 그 색깔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점점 더 자라면서 어머니는 한 주 동안 해야 할 일, 시간표,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메시지를

붙이셨다. 우리는 칠판이나 게시판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냉장고에 복음 그림도 붙여 두셨다.

2월이 되면 어머니는 우리 이름을 모두 써 넣은 커다란 하트를 냉장고 위에 붙이곤 하셨다. 3월에는 어머니의 결혼 사진과 생일 선물로 받고 싶은 것들의 목록을 붙였다. 6월은 아버지가 태어나신 달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위한 것들을 게시했고,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각각 태어난 달에도 그렇게 하셨다. 9월에는 멕시코 국기를 전시했고, 부모님의 조상들을 기억하는 11월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기회로 삼고 그들의 사진을 붙였다. 12월에는 어머니가 옷으로 잘라 만든 조그만 예수 탄생 장면을 전시했다.

우리 중 한 명이 선교 사업을 나갈 때마다 어머니는 냉장고 위에 선교사 사진을 붙여 놓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떼어 내지 않으셨다. 어머니의 유일한 남자 형제가 죽었을 때도 어머니는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을 냉장고에 붙여 놓고 절대로 떼어 내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그 사진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지만 그 사진을 깊이 응시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는 외삼촌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냉장고와 어머니는 힘을 합쳐 우리 가족을 단합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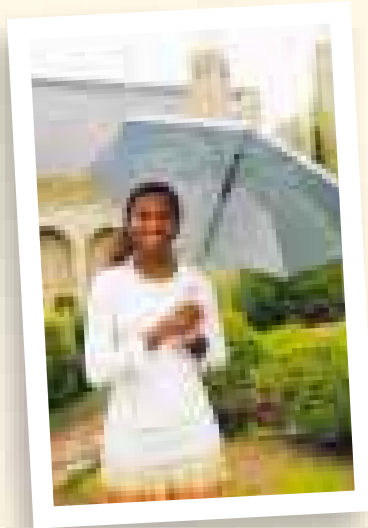
현재 우리 집에는 새것이며, 이상한 노란색도 아니지만 가족을 단합시키고 가르치는 자신의 의무를 배우고 있는 냉장고가 한 대 있다. 거기엔 우리 부모님의 옛날 결혼 사진, 숙모님의 결혼 사진, 우리 아이들이 그린 볼품없는 그림들이 걸려 있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어머니를 생각하며 어떻게 냉장고가 단지 음식을 차게 유지해 주는 것 이상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신 어머니께 감사드린다. ■



성전을 경외함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후기 성도 청소년들은 주님의 집이 가장 깊은 경의를 받을 만한 곳임을 알고 있다.

폴 벤던버그
교회 잡지



“주님의 집, 주님께 거룩함”이란 문구가 새겨져 있다. 성전은 이 지상에 존재하는 가장 성스러운 예배 장소이다. 성전은 성스러운 곳이며 그곳에서 행해지는 일들 또한 성스럽기 때문에 성전 의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깨끗하고 합당해야 한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내려진 계시에서 구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다.

날 레디 머커코조는 어릴 적부터 성전 마당에 왔었다. 나이가 들어 성전을 자주 찾는 지금, 성전은 늘 그녀 안에, 즉 그녀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방에는 요하네스버그 성전 사진이 걸려 있어요. 늘 깨끗한 생각을 하고 항상 영이 거할 수 있도록 성전 사진을 벽에 걸어 놔어요.”라고 17세의 날레디는 말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는 오늘 아침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다. 그러나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스테이크 에너데일 지부에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 성전에 온 날레디와 다른 청소년들은 비에 상관없이 행복에 들떠 있다. 날레디는 “성전을 다시 보고 싶고 주님의 영을 느끼고 싶어서” 오늘 이곳에 왔다. 날레디에게 성전에서의 하루는 여느 날과 다르다. “이것은 특별한 의식이고 특별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특별하게 옷을 입고 행동해야 해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날레디는 성전이 성스러운 장소임을 이해한다. “우리는 성전 안에서 아주 경건해야 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성신이 그 안에 거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준비해야 하고, 정숙하게 행동하고 깨끗해야 하며, 공경심을 가져야 해요.”

주님께 거룩함

성전은 말 그대로 주님의 집이다. 전세계 모든 성전에는

“그리고 나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나를 위하여 집 한 채를 짓고 어떠한 부정한 것도 그 안에 들어오음을 용납하지 아니하여 ... 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 것이요,

“참으로 나의 임재가 그 곳에 있으리니 이는 내가 그 안에 들어 갈 것임이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올 자로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모두 하나님을 보리라.” (교리와 성약 97편 15~16절)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일까?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1906~2004년)는 이렇게 설명하셨다.

“구주를 실제로 본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진을 찾아보면 ‘보다’라는 말에 다른 의미도 많다는 것, 예를 들어 구주를 알게 되거나 그분을 알아보거나, 그분과 그분의 사업을 인식하거나 그분의 중요성을 깨닫거나 그분을 이해하게 된다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하늘의 교화와 축복은 우리 각자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¹

요하네스버그 성전 회장인 루이스 그론월드 형제는 교회의 청소년들이 이 거룩한 건물 안에서 구주와 그들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한다. “성전은 죽은 자들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성스러운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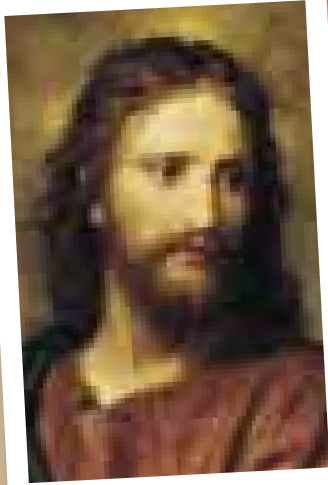


맞은편: 렛소알로 투미가 요하네스버그 성전 밖에 서 있다. 위: 헨리 매콘자는 경건함의 훌륭한 본보기이다. 삽입(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헨리 매콘자, 그레이스 느쿠시, 팰리사 머커코조 및 린디웨 모레이가 루이스 그론월드 성전 회장과 만나고 있다.

청소년들이 이 생과 다음 생을 더욱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준비해 줍니다.” 성전에서 봉사함으로써 받게 되는 축복들은 여러 가지이다.

네 가지 위대한 축복

첫째, 그론월드 성전 회장은 청소년들이 성전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다고 말한다. 헤이트 장로님도 말씀하셨듯이 성전은



성 전에 참석하는
청소년들은
주님의 집에서
구주와 더 가까워지는
특권을 갖는다.

주님을 알게 되는 장소이다.

두 번째 축복은 이타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론월드 성전 회장은 이러한 봉사가 “자애와 그리스도의 영의 기초”라고 말한다.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청소년들이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의식을 많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훗날 자신의 엔다우먼트와 성스러운 인봉 의식을 받도록 인도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들은 영생에서의 무한한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론월드 성전 회장이 말하는 세 번째 위대한 축복은 성전 의식이다. “이 의식들 없이는 생의 충만함도 승영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엔다우먼트 의식과 해의 왕국의 결혼이 이러한 의식에 속한다. 엔다우먼트는 일련의 가르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의롭게 살고 구주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성약 또는 약속들을 포함하고 있다. 해의 왕국의 결혼은 남편과 아내를 그들의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인봉하는 의식이다.

네 번째로, “성전은 교회의 모든 가르침을 하나로 묶어 줍니다.”라고 그론월드 성전 회장은 말한다. 그는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배우는 모든 내용들이 성전에서 더욱 강화되며 하나가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모든 가르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원의 계획에 근거한다. 성전에서 “복음은 하나의 위대하고 온전한 경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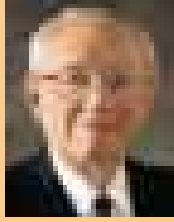
맨 위: 날레디 머커코조는 영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자신의 방에 요하네스버그 성전 사진을 걸어 두고 있다.
위(시계 방향으로 왼쪽부터): 록산느 카렐, 빈센트 마이에테, 카일 지먼 및 지미 플라치즈가 성전 마당에서 즐거워하고 있다.

됩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성전의 평화

“이곳은 주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경심을 표하고 평화로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리지웨이 와드의 빈센트 마이에테 형제(17세)가 말한다. 빈센트는 록산느 카렐 자매, 지미 플라치즈 형제, 카일 지먼 형제 등이 와드 청소년들과 아침 일찍 성전에 왔다.

록산느(14세)는 이렇게 말한다. “자는 것보다 성전에 오기로 한 것은 제 결정이었어요.” 그러나 일찍 일어난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었다. 그녀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의식을 친구들과 베풀기로 한 것을 기뻐한다. “저는 사람들을 도왔어요. 참 좋은 경험이었답니다.”



“죽은 자를 위해 성전에서
침례 받는 기회를
이용하십시오. 그리하여 그
거룩한 경험이 여러분의
생활의 빛이 되게 하고
여러분 자신을 항상 모든

경우에 그렇게 행동하게 하여 적당한 때가 되면
주님과 특별하고도 엄격한 신뢰 관계를 맺어 그의
거룩한 집에 들어가는 추천서를 받아서 모든
축복과 특권을 그곳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주님의 집을 거룩하게 지킴”, 성도의
벗, 1990년 7월, 61쪽.

카일(17세)은 성전의 아름다운 정원을
둘러본다. 이른 아침에 내린 비로 모든
것이 살짝 젖어 있다. “이곳에는 다른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고요함이
있어요. 이곳에 오기 위해 작은 희생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좋아요. 전
성전에서 결혼하고 싶어요.”라고 그는
말한다.

“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성전이 있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많습니다.”라고 지미(20세)가 말한다. “우리는 이 특별한 의식을
수행할 수 있고 이미 돌아가신 친척들을 위해 침례 의식을 베풀
수도 있어요. 우리를 위해 큰 축복이지요. 영, 특히 성전 안에
있을 때 느끼는 영은 매우 강합니다. 성전 밖에 있어도 그 평화를
느낄 수 있어요.”

경외심을 나타내는 복장

에너데일 지부의 팔레사 머커코조 자매(14세)는 성전에 올 때면
항상 가장 좋은 옷을 입는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기
때문에 이렇게 입어요.”라고 그녀는 설명한다. 그녀는 성전에 올
때 갖게 되는 느낌으로 인해 이러한 공경심을 갖게 되었다.
“주님의 집에 들어서면 아무런 유혹도 느끼지 않고, 이곳에서는
모든 게 괜찮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잘못되지 않을 거예요.”

그론월드 성전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전에 오는 청소년들은 합당하게 옷을 입습니다. 합당한 옷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일요일에 입는 가장 좋은
옷입니다.” 그것은 성찬식에 참석할 때 입는 옷과 같다. “복장은
단정해야 하며 일요일에 적합해야 하고, 가진 옷 중 가장 좋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표준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같은 지부 소속인 헨리 매곤자 형제(18세)는 성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두 손을 모으고 서 있다. 헨리는 그가 오랫동안
준비해 온 부름인 선교사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경건함이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복장과 행동처럼요. 이러한 것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우리의
복장이 경건하다면 굳이 여러 말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다.”

라고 그는 설명한다

“우리가 옷을 어떻게 입는지는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라고 같은 지부의
스테파니 마드하브 자매(16세)가 말한다.
“성전은 정말 위대한 곳이니깐요. 그곳은
주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면전에 있는 것처럼 옷을 입어요.”

이 청소년들이 이해하게 된 것은 바로 합당한 복장과 몸가짐이
공경심과 경건함을 나타낸다는 사실이다. “이 모든 것은 위대한
유산의 상징이 됩니다. 예를 들면, 흰 셔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결함의 상징이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징이 나타내는 것보다 상징물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흰 셔츠는 단순히 순결함의 상징입니다. 유행이나
스타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과 정신이 살아 계신
선지자들을 따르기 원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라고 그론월드 성전 회장은 말한다.

미래를 위한 준비

마음과 정신의 평화, 봉사에서 오는 기쁨, 그리고 자신감이
요하네스버그의 이 청남 청년들의 얼굴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들은 성전의 성스러운 특성과 이 거룩한 집에서 얻을 수 있는
축복에 대한 확고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의로움의 본보기가 된다.

성전의 축복은 그론월드 성전 회장의 다음과 같은 약속처럼
남아프리카 청소년들의 삶에서 드러난다. “이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선택했으며 그들을 형제자매로서 하나가 되게 해 주는
교회에 대한 이해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주님의
사업을 하기 위해 더욱 더 큰 자신감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이
느낌은 그들이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그들의 미래를 위해 청소년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

주

1. “성전과 성전 사업”, 성도의 벗, 1991년 1월, 67쪽.

왜 상징을



사용하는가?



주님은 성전에서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상징을 사용하신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성 전 예배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는 이렇게 설명했다. “각 성전은 배움의 집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방법으로 배웁니다. 그분의 방법은 다른 사람들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그분의 방법은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해 왔으며 상징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각 상징이 의미하는 실체에 대해 깊이 생각함으로써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¹

복음의 상징은 영적 진리를 나타내는 물체, 사건, 행동 또는 가르침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찬의 빵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타낸다. 가르침의 한 방법으로서의 상징은 아담의 시대만큼이나 오래된 것으로서, 아담은 천사로부터 양떼의 첫 새끼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희생하실 모형”(모세서 5:7)이라고 배웠으며 그 첫 새끼를 희생 제물로 바치라는

명을 받았다. 아담이 희생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가장 높은 신권 의식을 가르치시는 데 사용하시는 “고대의 의미 깊은” 방법을 이해하는 데 인도가 필요하다.

경전, 교회 지도자, 후기 성도 학자들이 제시하는 다음 내용은 우리가 성전에서 볼 수 있는 풍부한 상징적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왜 상징을 사용하시는가?

“그리고 보라, 만물은 그 닮은 것이 있고 만물은 나를 증거하기 위하여 창조되고 지음을 받았나니, 현세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거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 위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를 증거하느니라.”(모세서 6:63)

“상징은 공통된 언어입니다. ... 상징은 우리의 이해를 깊고 풍요롭게 해 주며, 언어에 구체적인 의미와 힘을 줍니다. 상징은 말로써 설명할 수 없는 생각과

가르침의 한 방식으로서의 상징은 주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가르침만큼이나 오래된 것입니다.

성

전에서 입는 옷에서부터 장식, 그리고 그곳에서 행해지는 의식에 이르기까지, 상징은 우리의 참된 본성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영을 위해 갖고 계시는 거룩한 계획에 관한 가르침의 중심적 역할을 한다.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상징은 말 없이 사물을 묘사할 수 있으며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상징적 언어는 악한 자들로부터 특정한 교리적 진리를 감추어 줌으로써 외부의 조롱으로부터 신성한 것들을 보호해 줍니다. 동시에 상징은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에게 진리를 밝혀 줍니다.

“... 모든 복음 성약과 구원의 의식들은 상징의 언어로 계시되어 왔습니다. 침례의 물에 잠기는 때로부터 우리가 선택한 동반자와 함께 성전

제단에 무릎 꿇고 영원한 결혼의 의식을 행하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맺는 모든 성약은 상징의 언어로 기록될 것입니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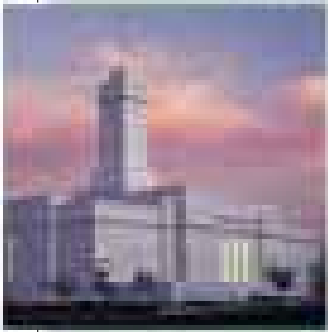
“복음의 필수적인 의식들은 속죄를 상징합니다. 침수로서의 침례는 구속주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상징합니다. 성찬을 취하는 것은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해 주며 또한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와 찢긴 살을 다시 기억하게 해 줍니다. 성전 의식들은 우리가 주님과 화해하는 것과 가족이 영원히 함께 인봉되는 것을 상징합니다.”³



성전에서 사용하는 상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성전에서는 모두가 흰 옷을 입습니다. 흰색은 순결함의 상징입니다. 정결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권리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똑같은 옷을 입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함을 상징합니다. 거지와 은행원, 많이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 왕자와 빈민 모두가 성전에서는 나란히 앉으며, 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다면 그들은 모두가 똑같이 중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⁴

“성전 엔더우먼트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입는 성전 가먼트, 곧 성스러운 신권의 가먼트로 알려진 특별한 내의가 있습니다. 밤낮으로 입게 되는 이 가먼트는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가먼트는 주님의 성스러운 집에서 그분과 맺은



성 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받을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알 수 있도록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의 성전
참석을 위해 우리의
합당성과 준비를 평가하는
과정은 존재합니다.

방법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말로써 가르치셨습니다.”¹¹

“성전 참석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영향력 있고 구체적인 권고를 줍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끊임없이 보고 경험합니다. 하늘의 방식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성전 사업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또 하나의, 훨씬 좋은 세상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동안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은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 자신이 이 세상과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

“성전에서의 가르침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해 줍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특별한 것, 때로는 그 의미가 드러나기 전에 반복적인 참석과 기도가 요구되는,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 (욥기 42:3)에 대해 배웁니다.”¹²

왜 사람들은 성전 의식이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 성스러운 것이라고 말하는가?

“이 경륜의 시대 초기에 받은 한 계시에서 주님은 거룩한 집이 지어지는 것은 그분의 뜻이며, 그분의 영광이 그 집에 거하고 그분이 그 안에 임재하시며, 그분이 그곳에 오실 것이고 그곳에 오는 마음이 청결한 모든 사람은 한 가지 조건 하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조건은 ‘어떠한 부정한 것도 그 안에 들어움을 용납하지 아니하여 그 집이 더럽혀지지 않게 (교리와 성약 97:15~16) 하는 것입니다. 그 지시에 따름으로써 거룩한 성전은 신중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것은 비밀로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 행해지는 일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므로써 그분의 표준의 잣대로 보았을 때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들을 성전에 금함으로써 그곳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¹³

“[성전] 의식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켜지기 위해 어두운 곳에 깊숙이 숨겨진 비밀이 아닙니다. 모세로부터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의식의 기본 개념은 세상과의 분리입니다. 엔다우먼트는 타락하고 세속적이며 간헐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밟아야 하는 단계를 나타냅니다. ...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일들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게 성스러운 것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침해될 수 없는 성역을 보존해야 합니다 ... 왜냐하면 나의 모든 성약은 나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일이기 때문입니다.”¹⁴

“우리는 성전 의식에 대해 성전 밖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전 의식에 관한 지식을 다른 사람이 절대로 알 수 없도록 선택된 소수의 사람에게 제한시키려는 의도는 결코 아닙니다. 사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전 경험을 하기 위해 자격을 갖추고 준비하기를 온 힘을 다해 촉구하고 있습니다. ...

“성전의 의식들은 간결하고 아름다우며 성스러운 것입니다. 그 의식들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도록 기밀로 유지됩니다. 호기심을 가지는 것은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도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을 위한 준비에는 다음과 같은 예비 단계가 포함됩니다. 그것은 신앙, 회개, 침례, 확인, 합당성, 그리고 주님의 집에 손님으로 초대되어 온 자에게 합당한 성숙함과 품위입니다.”¹⁵ ■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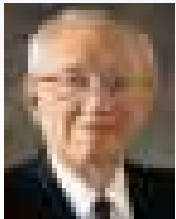
1. “성전 축복을 위한 개인적인 준비”,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38쪽; *Ensign*, 2001년 5월호, 33쪽.
2. Joseph Fielding McConkie 및 Donald W. Parry, *Guide to Scriptural Symbols* (1990년), 1쪽.
3. 러셀 엠 넬슨, “속죄”, *리아호나*, 1997년, 1월호, 35쪽.
4. 존 에이 윌트, “Looking toward the Temple,” *Improvement Era*, 1962년 10월호, 710쪽.
5. 카를로스 이 에이시 장로, “성전 가먼트: 마음속의 약속을 외부로 표현함”, *리아호나*, 1999년 9월호, 35쪽.
6. 존 에이 윌트, “Symbolism in the Temples,”

Archibald F. Bennett 편 *Saviors on Mount Zion* (1950년)에서, 163쪽.

- 7. 휴 니블리, "What Is a Temple," *The Collected Works of Hugh Nibley: Volume 4-Mormonism and Early Christianity*에서, Todd M. Compton and Stephen D. Ricks (1987년)편, 366~367, 383쪽
- 8. Truman G. Madsen, *The Radiant Life* (1994년), 118쪽.
- 9. 존 에이 윌소, "Symbolism in the Temples," 168쪽.
- 10. Gerald N. Lund, "Understanding Scriptural Symbols," *Ensign*, 1986년 10월호, 24쪽.
- 11. 보이드 케이 팩커, "The Holy Temple," *Tambuli*, 1992년 6월호, 18쪽; *Ensign*, 1995년 2월호, 34쪽.

- 12. 닐 에이 맥스웰, "Not My Will, But Thine" (1988년), 133~134쪽.
- 13. 해롤드 비 리, *Decisions for Successful Living* (1973년), 137쪽.
- 14. Hugh Nibley, "Return to the Temple," *The Collected Works of Hugh Nibley: Vol. 12-Ancient History, Temple and Cosmo*에서, Don E. Norton 편(1992년), 61, 64쪽.
- 15. 보이드 케이 팩커, "The Holy Temple," *Tambuli*, 1992년 6월호, 17쪽; *Ensign*, 1995년 2월호, 3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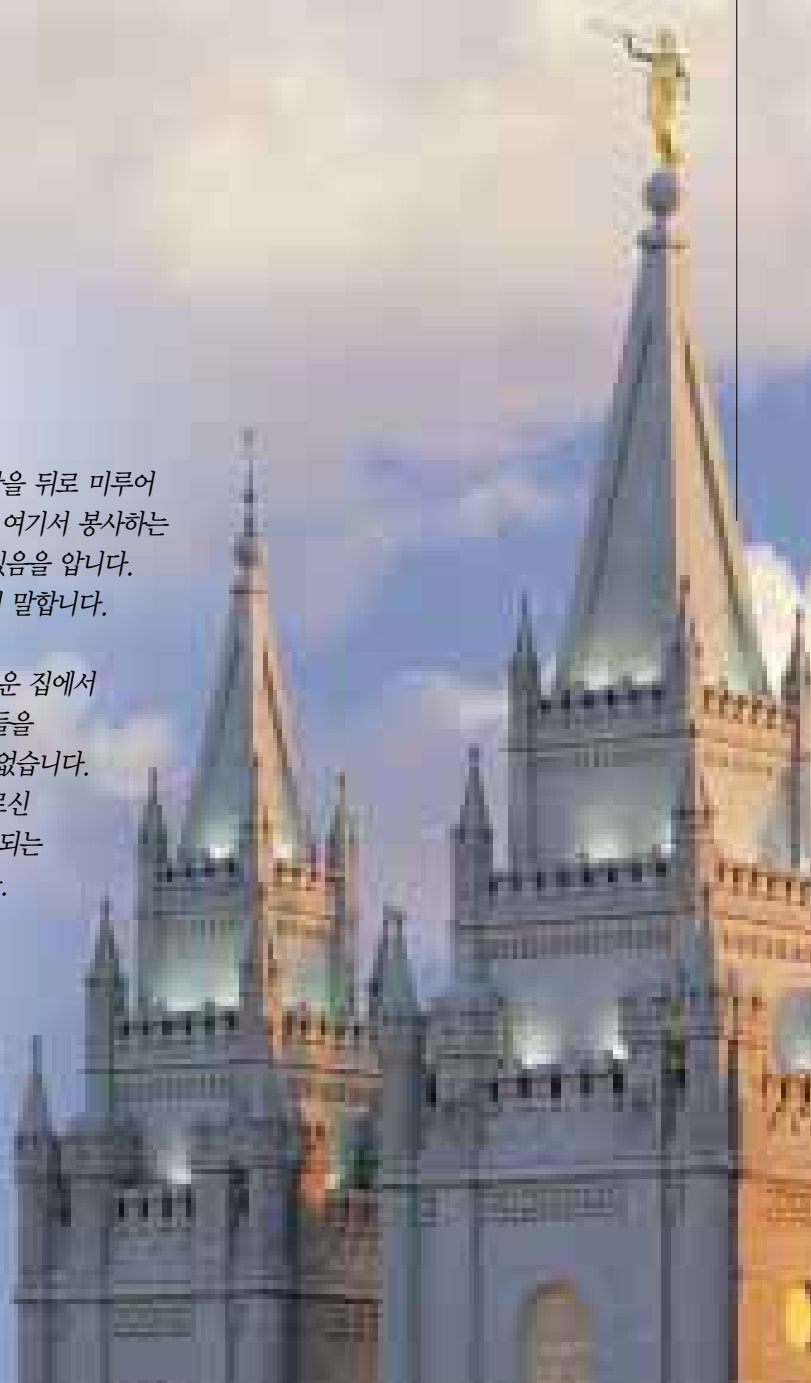
봉사의 성소



“성전 안에서는 ... 세상의 소음과 바쁜 생활을 뒤로 미루어 둡니다. 주님의 집에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여기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영원한 일에 관여하고 있음을 압니다. 모두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생각은 고양됩니다.

“이곳은 봉사하는 성소입니다. 이 성스러운 집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일은 죽음의 장막 저편에 있는 돌아가신 자들을 위하여 대신 행해집니다. 이 일에 비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어떤 일보다 모든 인류를 위해 치르신 하나님 아들의 희생과 가깝습니다. 이 신성한 봉사의 수혜자가 되는 이 세상 저편에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감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를 위한 산 자의 봉사입니다. 이것은 이타적인 봉사의 본질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The Salt Lake Temple," *Tambuli*, 1993년 11월, 5~6쪽.



성전이 가져다주는 감미로운 평화

회원들이 성전 참석을 통해 찾은 평화를 나눈다.

성전 결혼의 기쁨

우리는 둘 다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결혼하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지켜 왔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기로 했을 때 커다란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다른 부부가 우리로 하여금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집에서 무척 멀리 떨어져 있는 중국 홍콩 성전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2004년 2월 17일에 그곳에서 인봉되었습니다.

우리가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사랑이 영원하며, 현세와 영원을 통해 부부가 될 것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성전의 축복을 경험한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을 대신해서 침례 받고 그들이 엔다우먼트를 받아 영원한 가족으로 인봉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성전 의식을 수행하는 것에서 오는 기쁨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행복은 없습니다.

에디와 리사 로카디, 인도네시아

세상과 멀리 떨어져

아르헨티나에 살 때, 저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성전에 두 번 갔습니다. 한 번은 제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기 위해서, 또 한 번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전에 있을 때 받은 느낌은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그곳에 있을 때 세상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듯 느끼며, 성전에 다시 갈 것을 생각하면 정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신의 동반과 사랑과 위로에 대해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음과 선지자를 주심으로써 저와 저의 형제자매들에게 보여 주신 사랑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노마 로드리게스, 이스라엘

놀라운 축복

남편과 어린 아들 둘과 함께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고에 살 때, 제게는 매주 성전을 방문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번은 돌아가신 한 자매님을 위한 성전 의식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저는 마치 제 자신이 처음으로 의식을 받고 있는 것같이 느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앉아서 제가 배우는 모든 것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저의 영혼은 그 모든 가르침에 참으로 목말라 있었습니다. 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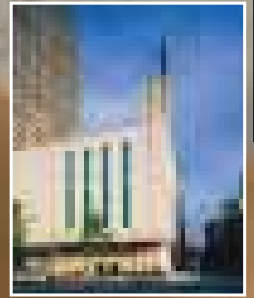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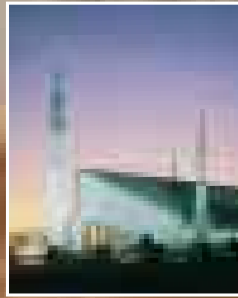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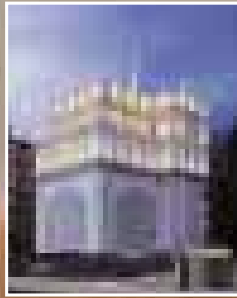
의식을 통해 그 자매와 그녀의 후손들에게 약속된 축복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기쁨과 감사의 느낌은 설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뻐 외치고 싶었고 제가 보는 모든 사람들을 껴안고 싶었습니다.

갱의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한 놀란 성전 봉사자를 껴안고 저의 느낌을 말했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어떤 분을 영원한 진리로 인도하는 일에서 말 그대로 제가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리트바 호카넨, 핀란드

성전에서의 기적

2002년 8월, 고든 비 헝클리 회장님이 갑자기 뉴욕 시를 방문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2년 후에 여러분이 성전을 갖게 된다는 발표를 하러 왔습니다. 저도 그 성전을 보기 위해 이곳에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기대는 커져 갔습니다. 마침내 성전 일반 공개가 2004년 5월 초에 시작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눈에 띄는 대로 모든 자원 봉사자



명단에 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모아 둔 11일간의 휴가 덕분에 성전에서 11일 동안 연이어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 안내자로서 저는 안내할 때마다 영을 느꼈으며, 가장 큰 보상은 방문자의 소감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팡이에 의지하여 걸었던 한 몸집 큰 남자를 기억합니다. 안내가 끝났을 때, 그는 빛나는 눈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여기서 느꼈던 평화만큼 큰 평화가 깃든 곳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전 일반 공개는 이와 같은 많은 기적을 가져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곳을 가득 채운 매우 특별한 영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일반 공개 기간 동안 안내자로 일하는 칠레에서 온 한 젊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참으로 들뜬 마음으로 그녀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몇 주 동안 미국을 관광하는 중이며 곧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언제 교회 회원이 되었는지 물었고, 아직 침례도 받지 않았다는 대답을 듣고는 무척 놀랐습니다.

그녀는 제가 말문이 막힌 것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휴가 둘째 날 그녀는 신문에서 성전 일반 공개를 알리는 광고를 보고 호기심이 생겨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안내를 받는 동안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아름다움과 평화에 참으로 감동되어 눈물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안내가 끝났을 때 그녀는 선교사에게 교회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 달라고 했고, 가르침을 듣고 나서는 침례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휴가 차 이곳에 왔고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복음을 들을 방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비록 교회 회원은 아니지만 그녀는 일반 공개 기간 동안 안내자로 일할 수 있도록 부탁했던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성전에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엔다우먼트를 받을 때마다, 돌아가신 조상을 위해 침례를 받을 때마다, 또는 젊은 부부가 현세와 영원을 위해 인봉될 때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뉴욕 맨해튼 성전이 헌납되기 전에도 영은 그곳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헝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곳은 빛의 장소이며 평화의 장소이며 사랑의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행합니다.”

카를로스 곤잘레스, 멕시코 ■

순 사진 촬영: 조 톨리, 중국; 장군, 중국; 사진: 크리스티나 데이비슨; 사진: 이리헤타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성전: 베스트로트 쿠르텔로; 플로리다; 사진: 스티브 트라기글, 북서 공파; 뉴욕 맨해튼 성전; 사진 촬영: 매튜 라이어

질문의 응답

“친구가 정말 우울해하고 있고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리아호나의 대답

친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심각하며
자매님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친구는 주님의 도움뿐만
아니라 상담과 약물 치료가 포함될 수도 있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무력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도움
받기를 주저합니다. 자매님의 친구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 할지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적어도 그녀의 부모님께서는
말씀드려야 합니다. 자매님은 의사, 학교 상담자,
감독 또는 지부 회장에게 조언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자살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면 그녀의 문제를 그들에게 알리는 것은
더욱더 시급한 일입니다.

친구가 도움을 받는 동안 계속해서 그녀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자매님이 그녀에게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게 하고 자매님 외에도 그녀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자매님이 느끼는 그녀에 대한 좋은 점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말해 주십시오. 재미있고

*최대한 빨리 친구의 부모님,
그리고 의사, 상담자, 신권
지도자와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성인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친구의 말에 귀 기울이며
꾸준히 좋은 친구가 되어
주세요.*

*그녀가 중요하고, 자매님이
그녀에게 관심을 갖고
있으며, 도움을 받으면
기분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친구가 알도록 해
주세요.*

*이 주제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www.LDSFamilyServices.org
를 방문하십시오.*

기운을 북돋워 주는 활동에 그녀를 초대하십시오.
봉사는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친구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또한 신체적인
활동은 친구의 기분을 고양시켜 줄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자매님의 친구는 자신의 인생에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울함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개개인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기쁨을
얻고 시련을 극복하고 목적을 달성하도록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자매님은 이 간증을 친구와
함께 나누면서 때가 되고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
인생을 즐길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고민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친구에게 상기시켜 주십시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인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삶이 도전이라는 사실은 의도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근심, 우울, 낙담,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 우리 삶의
투쟁에는 위대한 목적이 있습니다.”¹ 그러나 문제에
집착해서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
문제들 때문에 더욱더 강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친구에게 또한 많은 곳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음을 일깨워 주십시오. 우울증은 정신적 또는 정서적인 병의 증상입니다. 육체적인 병을 치료 받기 위해 의사를 만나야 하듯, 친구는 우울증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친구는 교회 회원이든 아니든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신권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전을 읽음으로써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녀를 사랑하시고 그녀를 평안으로 축복하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간증하십시오.(요한복음 14:27 참조)

주

1. "Solving Emotional Problems in the Lord's Own Way," *Ensign*, 1978년 5월호, 93쪽.

독자들의 대답



저라면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냄으로써 그녀의 삶이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 활동에

참석하도록 친구를 격려해서 우울증을 완화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을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끝으로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녀를 도와주시도록 간구하겠습니다.

라이언 에스, 17세, 필리핀



바로 지금이 자매님이 도울 수 있는 때랍니다. 친구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기보다는, 친구에게 말을 걸고 친구의 말에 귀 기울이세요. 저는 제가 우울하거나 좌절하거나

화가 나거나 슬플 때 언제나 제게 힘이 되어 준 교회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친구들이 언제나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기 때문에 저는 제가 사랑 받고

있다는 걸 알아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면 대체로 저는 제 자신과 상황에 대해 훨씬 나아진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이렇게 지지하고 격려해 줌으로써 친구가 자신감을 되찾도록 도와주세요. 또, 친구가 더 큰 신앙을 갖고 행복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세요.

유에 민 엘, 16세, 타이완



친구에게 그녀에게는 놀라운 미래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녀를 무척 사랑하시며 그녀를 위해 마련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친구가 이 지상에 오기 전에 그녀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고, 그녀는 바로 그 사명을 행함으로써 그분의 뜻을 성취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녀로부터 복음을 듣고 따뜻한 사랑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이 있습니다. 저라면 특히 그녀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라는 것을 말해 주겠습니다.

엘리자베스 비, 20세, 인도 안드라프라데쉬



친구가 실제로 자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감독님, 지부 회장님, 또는 다른 믿을 만한 성인의 도움을 구하세요. 그런 다음 친구에게 가족과 친구들과 하나님 아버지가 그녀를 염려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친구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자매님이 그녀를 도울 수 있도록 인도를 구하세요. 친구에게 말을 걸고 자매님이 언제나 그녀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고, 우울한 기분을 잊도록 해 줄 고무적인 활동에 친구를 초대하세요.

올리비아 씨, 19세, 캐나다 온타리오 주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누군가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자매님이 알고 신뢰하는 성인에게 알려주세요. 그분들은 자매님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매님도 친구를 도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단순히 귀를 기울이는 것이 최선이에요. 많이 이야기하지는 마세요. 사람들은 단지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알렉산드라 엠, 17세, 캐나다 퀘벡 주



“제 자신도 우울증으로 인한

무기력증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이 겪은 경험으로부터, 그리고 제가 만난 사람들의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도록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선과 힘과 확신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으며 신뢰감을 갖고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일어섭니다. 우리는 치유됩니다. 살아 남게 될 뿐만 아니라 삶을 사랑하게 됩니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캐서린 에이치 휴즈, “생수가 주는 축복”,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13쪽.

한때 우울증에 빠졌던 사람으로서 저는 제 경험에 비추어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매님은 언제나 친구와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그녀가 알도록 하고, 자매님이 그녀를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 주세요. 그리고 그녀가 자매님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 주십시오. 제 말에 귀 기울여 주고 기꺼이 저를 도와주는 룸메이트가 있었던 것은 제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권 축복 또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음



친구를 방문하고 함께 나가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그녀가 행복하고 친구들과 사이에서 환영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때로는 함께 기도하고 경전을 읽도록 하세요. 친구와 함께 교회 모임과 활동에 참석하세요. 자매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녀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해 주세요. 친구가 영적, 신체적으로 건강해지도록 격려해 주세요.

그레이스 에이, 20세, 가나

대답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교회의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호 질문

“때때로 우리 엄마와 저는 잘 지내지 못해요. 우리는 헤서는 안 될 말을 하고 결국 상처를 받곤 합니다. 저는 엄마를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지만, 좋은 감정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 관계가 더 나아지도록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대답을 성명, 생년월일, 와드 및 스테이크(또는 지부 및 지방부), 사진(사진을 실어도 좋다는 부모의 서면 동의와 함께)과 함께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Questions & Answers 3/07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대답은 2007년 3월 15일까지 보내 주십시오.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강화함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됨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는 성구와

가르침을 이 메시지에서 선택하여 읽는다.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나눈다. 여러분이
방문한 자매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한다.

어떻게 나의 간증을 강화시킬 수 있는가?

말마서 32:27: “내 말을 시험하기에 이르며, 아주 작은 신앙을 행사하려 할진대, 참으로 설혹 너희가 믿기를 바라는 것 이상은 할 수 없을지라도, 이 바람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게 하기를,”

리처드 지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평가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간증은 얼마나 강합니까? 이것이 참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탱케 하는 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참되다고 배운 것에 대한 희망에 불과합니까? ...

여러분의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믿는 신앙을 행사할 때 강화될 것입니다. ... 강한 간증은 기도과 묵상의 고요한 순간에 ... 스며드는 것입니다. ... 강한 간증은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 가운데 옵니다. 강한 간증은 신앙과 시간,

꾸준한 순종, 기꺼이 희생하려는 마음을 필요로 합니다.” (“강한 간증의 힘”,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101~103쪽)

키스 비 맥멀린 감독,

감리 감독단 제2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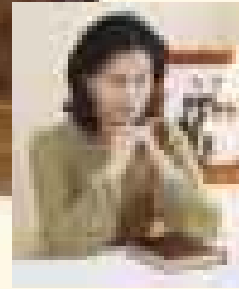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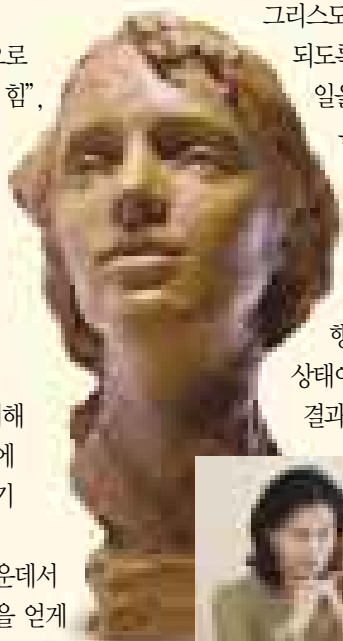
“그러한 간증은 개인의 노력 없이는 얻어지지 않습니다. 알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알기 위해 연구하고, 간증을 얻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겸손과 신앙 가운데서 추구할 때 우리는 지식을 얻게 되고, 이 지식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감미로운 확신뿐 아니라 잘 되게 해 줄 내적인 힘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하오니”,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33쪽)

어떻게 나의 간증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인도할 수 있는가?

모로나이서 10:32: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라. 너희가 만일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고, 너희의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의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니, 그의 은혜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지라.”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복음의 진실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음대로 행동하고 생각하여 그로 인해 완전히 개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제도는 우리에게 뭔가를 알도록 가르치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뭔가가 되도록 권유합니다. ... 그저 올바른 일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올바른 동기, 곧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올바른 일을 해야 합니다. ...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 (모로나이서 7:47)인 자애는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지속적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개심의 결과를 가져오는 연속적인 행위들을



통해 얻게 됩니다. 자애란 사람이 되어 가는 그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무엇인가 되어야 하는 과제”,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40~42쪽)

앤 시 핑그리, 부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으며, 구주와 우리 각자를 위한 그분의 속죄에 대한 간증을 지니는 축복을 감사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기 위한 우리의 개인적인 노력이 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즉, 우리의 필멸의 여정이 가장 개인적이고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풍부해지도록 해주었음을 저는 압니다.” (“우리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앎”,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114쪽) ■

사진 촬영: 이현규, 모델: 이포즈를 촬영: 도구 사진 촬영: 크레이그 데이먼, 터틀리 © 아트바즈



프랑스에 있는 세
성당의 색유리창:
샤르트르(중앙, 외부 조망 맨
위쪽); 부르주(왼쪽); 상(맞은편
페이지). 각 창문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구원의 계획에 대한 그림과 함께 묘사되어
있다.

선한 사마리아인 잊혀진 상징물



존 더블류 웰치

브리검 영 대학교 제이 루벤 클라크 법과 대학원 교수
겸 BYU Studies 편집장

심오한 차원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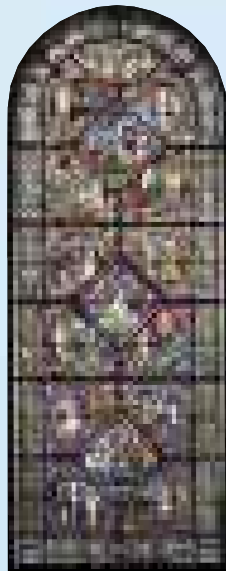
각 비유에는 “귀 있는 자”(마태복음 13:9)만이 이해할 수 있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구주께서는 종종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믿지 않는 자들은 구주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음을 단언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비유]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셨다.” 그는 또한 우리가 “눈을 뜨고 순수하게 읽기만 한다면”¹ 그러한 비유를 이해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이 원리를 알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상징적인 메시지에 대해 깊이 반추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뛰어난 이야기는 소수의 현대

이 비유는 인류의 타락과 구속에 대한 인상적인 비유로 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이야기 중 영향력이 가장 큰 이야기 한 가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다. 예수님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질문한 사람에게 이 비유를 설명해 주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대답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그 사람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대답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약속하시자 그 사람은 도전하듯 응수했다.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이 사람의 질문에 대답하시며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누가복음 10:25~35 참조)



독자들만이 눈치챌 수 있는 방법으로 구원의 계획을 훌륭하게 요약하고 있다.

이 비유의 내용에서 분명히 의미하는 바는 매우 실제적이며 인상적이다. 그러나 유서 깊은 기독교적 전통에 따르면 이 비유는 또한 인류의 타락과 구속에 대한 인상적인 비유이기도 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초기 기독교적 이해는



사진 촬영: 존 더블류 웰치(왼쪽), 안드루 로우(오른쪽), 사진: 에릭 리버

예

수는
평범한
장소가 아닌

예루살렘에서 내려가고
있는 사람을 나타낸다.
거룩한 성전 도시의
신성함 때문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요소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려왔다는
개념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프랑스 샤흐트르에 있는 유명한 11세기 대성당에 묘사되어 있다. 이 성당의 아름다운 색 유리창 윗부분에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모습이, 그리고 이와 나란히 아랫부분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려져 있다. 이는 “중세에 널리 퍼져 있던 그리스도의 비유에 대한 상징적인 해석”을 담고 있다.² 이 창문을 바라보고 있자 궁금한 점이 생겼다. 아담과 이브의 타락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나는 곧 그 해답을 찾았다.³ 이 비유적인 해석의 기원은 초기 기독교 시대로 깊이 거슬러 올라간다. 기원 후 2세기, 프랑스의 이레나이우스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죄로 인해 상처 입은 타락한 희생자를 구원하는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다. 수년 후에 클레멘트의 제자 오리젠은 이러한 해석은 다음과 같이 상징을 묘사한 훨씬 더 이전의 초기 기독교인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던 사람은 아담입니다. 예루살렘은 낙원이며 여기고는 세상을 말합니다. 강도들은 적대 세력입니다. 제사장은 율법이며 레위인은 선지자,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상처는 불순종을 나타내고, 짐승은 주님의 몸이며,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주막은 교회입니다. … [주막] 주인은 교회를 돌볼 책임을 맡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돌아오리라는 약속을 했다는 것은 구주의 재림을 상징합니다.”⁴

이와 같은 비유적인 해석은 고대 예수의 제자들에 의해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레나이우스와 클레멘트와 오리젠에 의해 그리고 4세기와 5세기에 걸쳐 콘스탄티노플의 크리소스톰과 밀란의 암브로스,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아우구스틴의 지지속에 초기 기독교계에 널리 퍼져 있었다. 이와 같은 해석은 프랑스의 부르주와 상에 있는 두 성당의 중세풍 색 유리창에서 가장 완전한 형태로 찾아볼 수 있다.

구원의 계획의 예표와 그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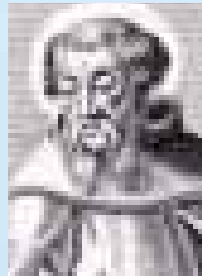
독자들은 경전을 상고함으로써 많은 것을 얻게 되는데, 특히 이러한 기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5:39 참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것은 구원의 계획과 구주의 대속의 사랑과 영생을 상속받기 위한 우리의 여정에 대해 가르친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여기고로 내려간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상에 살기 위해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려온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로도 읽을 수 있다. 그 의미는 후기의 선지자를 통해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추어볼 때 가장 분명해진다.

그 이야기를 부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어떤 사람.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사람을 아담에 비유했다. 이 관계는 현대의 번역보다는 고대 언어에서 더 명백히 드러난다. 히브리어에서 아담이라는 단어는 “인간, 인류”, “인간의 복수 형태” 뿐만 아니라 고유명사로서의 “아담”을 의미한다.⁵ 이와 같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이 비유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이 “우리 모두”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다. 참으로 우리는 아담과 이브처럼 이 지상에 내려와 위험과 필멸의 생의 변천을 겪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 (고린도전서 15:22)

내려가다. 초기 기독교인 작가 크리소스톰은 이 구절에서 아담이 동산에서 이 세상으로, 즉 영광에서 세속으로, 불멸에서 필멸로 내려가는 것으로 보았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인간이 여행에서 만나게 될 위험을 알면서도 자의적으로 내려왔음을 의미한다. 아무도 그를 강제로 여리고로 내려가도록 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던 시대에 도로는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으며 그와 같은 여행길에는 어떠한 위험이 따르는지 잘 알려져 있었지만 그는 그 여행이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꼈다.⁶



초기 기독교인 작가들:
이레나이우스 (위쪽),
클레멘트 (위 오른쪽),
암브로스(오른쪽)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이 평범한 장소가 아닌 예루살렘에서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묘사한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거룩한 성전 도시의 신성함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려왔다는 개념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여리고로. 여리고는 이 세상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해발 250미터 아래에 위치한 여리고는 지상에서 가장 낮은 도시이다. 온화한 겨울 날씨의 이 도시는 향락적인 휴양지였으며 해돋이 이곳에 화려한 휴양 궁전을 짓기도 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비유에 나오는 여행자가 강도를 만났을 때 그는 아직 여리고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사람은 여리고로 내려가는 가파른 길에 있었고 아직은 아래까지 내려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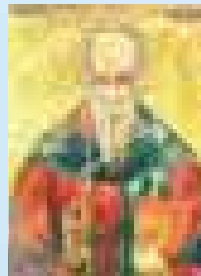
만나매(fell). 이것은 타락한 필멸의 상태와 죄의 궁지에 놓인 상태를 암시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참으로 모두가

타락하여 잃은 바 되었으니.” (엘마서 34:9)

강도. 초기 기독교인 작가들은 도둑(또는 강도)들을 악마와 그의 세력, 악한 영 또는 거짓 교사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했다. 누가가 사용한 “강도”라는 말의 그리스어는 평범한 강도가 아니었음을 나타낸다. 이 여행자는 계획적인 공모에 따라 행동하는, 교활하고 조직적인 집단의 전문적인 도둑들로부터 습격을 받은 것이었다.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 옷을 벗기고.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여기서 무엇인가 중요한 것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알았다. 오리겐과 아우구스틴은 여행자가 옷을 잃은 것에 대해 인간의 불멸과 불후성의 상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다. 크리소스톰은 “불멸의 로브(robe)” 또는 “순종의 로브(robe)”의 상실에 대해 말했다. 암브로스는 그 여행자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은혜의 옷을 벗기는” 것으로 말했다.



여행자가 소지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 재물이나 물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격자들은 여행자의 옷을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강도들은 여행자의 옷, 즉 거룩한 곳에서 가져왔으며 그들이 부러워하고 빼앗고자 했던 이 옷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때려. 이 말은 여러 가지 죄와 악으로 말미암은 생의 고통, 영혼의 아픔과 역경의 비유로 보인다. 참으로 영혼의 적들은 상처를 남긴다. (야곱서 2:8~9 참조) 범법에는 실질적인 결과가 따른다.(엘마서 41:10 참조)

거의 죽은. 강도들은 바로 그렇게 “거의 죽은” 사람을 버리고 떠났다. 우리는

여기에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의 상징을 볼 수 있다. 그 사람은 쓰러져 죄 가운데 놓이게 되었으며 첫째 사망에 이르는 필멸의 운명이 되었다. 그러나 둘째 사망, 즉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는 아직 피할 수 있었다. (엘마서 12:32~36 참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마침(역자 주: 우연히). 유대 제사장이 도착한 것은 의도적인

수색의 결과가 아닌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다. 그가 그곳에 있었던 것은 그 누구의 계획에 의한 것도 아니었다.

한 제사장이 ...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초대 기독교 해설자들은 모두 제사장이 모세의 율법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문제는 구약 시대의 신권을 가진 사람들이 넘어진 사람을 도와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이 그를 구원할 권능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참으로 모세의 율법은 완전한 효력이 없었으며, 단지 장차 있게 될 속죄의 예표이며 그림자일 뿐이었다.(모사이야서 3:15~17참조)

레위인은 구약의 선지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의 말을 성취하러 오셨다.(마태복음 5:17; 제3니파이 15:2~5) 낮은 계급의 제사장이었던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허드렛일을 했다. 적어도 이 레위인은 거의 도움을 주려는 단계까지 갔다. 그는 “그 곳에 이르러” 보았던 것이다. 그는 돕고자 했을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자신의 신분이 너무 낮아서 도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에게는 또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권능이 없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사마리아인. 초기 기독교인 작가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보았다. 크리스스툼은 사마리아인이 그리스도를 적절히 묘사한다고 했다. 이는 “사마리아인이 유대에서 온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오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청중들은 여기에서 구주께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음을 깨달았을 수도 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유대인들은 다음과 같이 예수님을 모욕하며 그분을 배척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요한복음 8:48) 나사렛은 사마리아 북부 골짜기 건너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두 장소는 쉽게 하나로 묶일 수 있었다.



사마리아인들이 가장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 받았던 것과 같이 메시아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 [사람들은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이사야 53:3).

여행하는 중.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마리아인은 목적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 본문에는 그가 우연히 도착했다고 나와 있지 않다. 오리겐은 “그는 죽어 가는 사람을 구하고 돌보기 위해 내려갔다.”고 말했다. 구주는 “제상에 구속을 가져다주”기 (제3니파이 9:21) 위해 오셨다.

불쌍히 여겨(compassion). 이 중요한 말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에 대해 말해 준다. 이 그리스어 단어는 사마리아인이 내면에서 깊은 동정심을 느꼈음을 보여 준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신약에서 저자가 자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감정을 묘사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이것은 악한 종의 비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 비유에서 주님(하나님을 나타냄)은 “불쌍히” (마태복음 18:27) 여겼으며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버지(하나님을 상징함)가 돌아오고 있는 그의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누가복음 15:20)였다. 이와 같이 사마리아인은 “육체를 따라,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좇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엘마서7:12)기 위해 고통 받으신, 동정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타나는 상징들	
상징	초대 기독교인의 해석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
희생자	죄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
예루살렘	낙원
여리고	세상
제사장	모세의 율법
레위인	선지자들
짐승	그리스도의 몸
주막	교회
주막 주인	교회의 머리

많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상처에 ... 싸매고. 초기 기독교인 중 일부는 붕대가 사랑, 신앙, 희망 그리고 “구원의 영원한 결속력”을 상징한다고 했다. 다른 이들은 끈을 우리를 의로움으로 묶어 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보았다. 후기 성도들은 구조된 사람이 성약을 통해 주님께 매어졌다고 덧붙일 것이다.(교리와 성약 35:24; 43:9 참조)

기름. 올리브유로 만든 약은 매우 큰 진정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초기 기독교인 작가들은 기름을 그리스도의 위안의 말씀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본 반면, 크리소스톰은 몇 가지 신권 의식, 병고침(야고보서 5:14 참조), 성신의 은사(종종 올리브유로 상징됨) 또는 왕과 왕후의 기름 부음과 연관된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보았다.

포도주. 사마리아인은 또한 상처를 닦아 내기 위해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다. 후기 기독교인 작가는 이 포도주를 깨끗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쓰는 어떤 것,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으나, 초기 기독교인의 해석은 성찬(마태복음 26:27~29, 제3니파이 18:8~11)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피와 연관되었다. 포도주, 즉 속죄의 피는 죄를 씻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진정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은 물리적인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구원의 복음 원리와 의식도 베푼다. 속죄의 포도주는 처음에는 쓰는 듯 아프지만 곧 치유의 평안을 가져다준다.

사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사기 짐승에 태워.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약점을 짊어지신다.(이사야 53:4; 엠마서7:11 참조) 사마리아인의 짐승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고 여겨졌다. 그의 짐승에 태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셔서



어 떤 이유에서인지 강도들은 여행자의 옷, 즉

거룩한 곳에서 가져왔으며 그들이 부러워하고 빼앗고자 했던 이 옷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주막. 초기 기독교인에게 이것은 단연 교회를 상징하는 요소였다. “주막”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공공의 집”이었다. 공공의 피난처는 여러 면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비유할 수 있다. 길가에 있는 주막은 하늘의 목적지는 아니지만, 여행자들이 그들의 영원한 집에 도착하도록 돕는 필수적인 것이다.

돌보아 주니라. 사마리아인은 첫날 밤에 부상당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를 몸소 돌보아 주었다. 그는 부상당한 사람을 주막 주인에게 성급히 넘겨 주지 않았으며 어두운 밤 동안 그와 함께 머물렀다. 오리겐이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수님은 부상당한 자를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돌보아 주시며 부상당한 사람에게 그분의 모든 정성을 기울이신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이 비유를 회복된 복음의

견지에서 이해하는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이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등장 인물에 실제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이튿날. 여기서 초기의 해설자들은 예수께서 부활의 아침에 일어나실 것이라는 개념을 알 수 있었다. 그리스도는 짧은 기간 동안 그의 제자들에게 친히 성역을 베풀었다. 그분은 승천하신 후 교회로부터 보살핌을 받도록 여행자를 두고 떠나셨다.

주막 주인. 따라서 초기 해설자들은 주막 주인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과 그들의 후계자로 보았다. 그러나 주막이 일반적으로 교회를 나타낸다면, 주막 주인과 그의 종업원들은 치료를 원하는 구조된 영혼을 양육하고 돌보도록 주님께서 맡긴 모든 교회 지도자와 일꾼들을 상징한다.

내가 돌아올 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암시로서 공공연히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한다. “돌아오다”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신약전서 누가복음 19장 15절에서

종들이 받은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돌아오실 주님의 비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구절에 또 한번 나온다. 이 두 가지 비유의 연관성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암시를 선명하게 강조하고 있다.

갚다 또는 보상하다. 마지막으로, 주막 주인은 그가 들인 비용 모두를 갚아 주겠다는 약속을 받는다. “들인 비용이 얼마이든 모두 갚으리라.” 어쩌면 이 이야기에서 이 부분을 단순히 일상적인 사건으로 이해하는 현대의 해설자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요소는 다른 무엇보다도 사실상 주막 주인에게 백지 수표를 준 것이나 다름없는 약속이었을 것이다. 제정신이라면 그 누가 처음 보는 주막 주인에게 이러한 무제한의 약속을 하겠는가? 그러나 이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이해한다면 이 약속은 일리가 있다. 사마리아인(그리스도)과 그 주막 주인은 이 약속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서로를 알고 있었으며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원한 원칙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신성한 충만함을 이해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상징과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다. (모세서 5:7 참조) 상징은 우리의 제한된 이해력을 그리스도의 비할 수 없는 복음의 신비에 깊이 새겨진 성스러운 진리로 인도하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상징적인 이해는 좋은 이웃이 되는 것에 대한 도덕적인 교훈에 영원한 관점을 더해 준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비유를 통해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의 본질을 가르치셨다. 이 계획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어디에서 내려왔고, 어떻게 필멸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분께서 재림하실 때 보상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살고 봉사할 때 구원의 복음 의식과 약속된

구속주의 치유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교회의 가르침이 현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구해 줄 것인가 하는 영원한 관계 속에서 이 필멸의 지상에서 베푸는 이웃에 대한 친절한 행위를 생각하게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비유를 이해한다면 독자들은 이 이야기 속의 모든 등장 인물과 실제적으로 공감할 수 있게 된다. 어떤 차원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물리적인 구조자와 시온 산의 구원자로서 행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대의를 품고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볼 수 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복음 10:37)고 말씀하셨다. 사마리아인처럼 행함으로써 우리는 인류에게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일을 도우며 그분과 함께할 수 있다.

제자들 또한 부상당한 여행자들의 장기적인 영적 회복을 돕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위임 받은 주막 주인으로서 자신을 생각하고 싶어할 것이다.

또는 독자들은 자신을 여행자로 여길 수 있다. 비유의 첫

부분에서, 모든 사람은 외롭고 지친 여행자를 동정하고 그와 공감한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아야 한다. 이야기가 끝날 때 모든 여행자들은 이 해석에 따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누가복음 10:36)은 자비로운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안전함을 느낄 수 있다. 그분은 가장 모범적인 ‘이웃’이다.

이와 같은 깨달음은 율법사의 두 번째 질문, 곧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까?”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준다. 동시에 이것은 첫 번째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영생은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누가복음 10:27)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아들(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오는 것이다.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 구주가 행한 대로 가서 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사이야서 2:17 참조) ■

상 성당에 있는 창에 그려진 내용은 그것이 상징하는 주제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디지털 기술을 사용해 오른쪽으로 분리됨)가 창문 한가운데 있는 세 개의 유리창에 묘사되어 있으며, 아담과 이브의 타락과 구주의 십자가에 달리심(디지털 기술을 사용해 왼쪽으로 분리됨)을 포함한 구원의 계획의 주제가 이 비유를 둘러싸며 창문을 완성하고 있다.



주

1. *History of the Church*, 2권 266쪽.
2. 맥컬 밀러, *Chartres Cathedral* (1985년), 68쪽.
3. 이 기사에 인용된 내용의 전문 및 출처를 위해, 존 더블류 웰치 “선한 사마리아인: 구원의 계획의 모형과 그림자”, *Brigham Young University Studies*, 1999년 봄, 51~115쪽 참조. 휴 니블리, 스티븐 로빈슨, 리슬 브라운, 질 메이저를 포함한 다른 후기 성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유사한 방식으로 해석했다.
4. 오리겐, 설교 34.3, 조셉 티 린하트, 번역, *Origen: Homilies on Luke, Fragments on Luke* (1996년), 138쪽.
5. 에드 알 레어드 해리스, 글리슨 엘 아처 이세, 브루스 케이 윌트케 편집,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1980년), “아담”, 1:10.
6. *Anchor Bible Dictionary* (1992년) “Travel and Communication” 6:644~646 참조. 고대 세계에서는 여행하는 동안 강도들의 습격을 받을 위험이 높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비유에 나오는 인물들과는 달리 홀로 여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이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나의 비유로서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실마리가 된다.

삶의 지침이 될 열 가지 원칙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다음은 제 자신이 복음에 따라 생활하면서 얻은 경험에서 나온 10가지 원칙입니다. 이 원칙들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원리를 결정짓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 근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국가의 혼란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다음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마태복음 24:6~7)

이 시대는 힘들기도 하지만 또한 흥미진진한 시기입니다. 복음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온 것처럼 굴러가고 있습니다.(다니엘 2:44~45) 이제 이 돌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은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봉사하기 위해 나아갈 때, 여러분의 가장 큰 성공과 영향력은 여러분이 얻은 지식으로부터 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즉 훌륭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현명하게 선택의지를 사용하는 지식을 갖고 행함으로써 옵니다.

물론 상황이 바뀌고 여러분의 이해력이 커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결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지금 내릴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장차 여러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원리나 원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 자신이 복음에 따라 생활하면서 얻은 경험에서 나온 10가지 원칙입니다. 이 원칙들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원리를 결정짓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칙

중요한 것은 장애물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다.

잠시 동안 여러분이 기차의 기관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관차가 선로를 달리고 있을 때 여러분은 창 밖을 내다봅니다. 저 멀리 선로를 가로막고 있는 큰 돌더미가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전으로 앞에 있는 역에 연락해서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기차를 멈추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엔진에 연료를 넣고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삶에서 장애물을 만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일시적인 장애는 영원한 발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장애물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기관사처럼 우리는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그리고 부지런한 연구를 통해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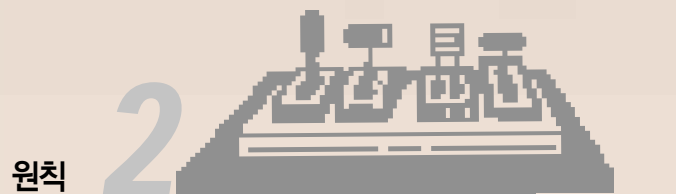


아버지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강화시켜 주며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종종 부모나 신권 지도자를 통해 우리에게 영감 받은 권고를 주실 것입니다. 때때로 그분은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심으로써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철도의 전철수(역자 주: 철도 선로의 분기점에서 차량을 다른 선로로 옮기는 장치를 조작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다른 선로에 오르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선로에 놓인 돌더미를 치우는 유일한 방법은 기차를 세우고 문제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어길 때와 같이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된 장애물인 경우에 항상 적용됩니다. 회개는 죄의 더미를 치우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는 이로써 너희가 알 수 있나니-보라, 그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것들을 버리리라.”(교리와 성약 58: 43)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신앙과 소망의 영적인 연료를 넣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지시하십니다. 경전상의 표현을 사용하자면, “힘써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느니라. 그런즉 만일 너희가 힘써 앞으로 나아가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며 끝까지 견딜진대, 보라, 이같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느니라.”(니파이후서 31:20)



원칙

마음과 정신과 힘을 다하여 자신의 목표를 추구한다. 결단력이 없으면 실패하게 된다.

우리는 자주 망설이며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치 어둠속에서 두려워하듯 더듬거리며 나아갑니다. 신앙의 불을 켜고 힘과 결의를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신 양의 불을 켜고
힘과 결의를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빨리
깨닫고 필요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주저하며
우유부단한 태도로 진로를 추구한다면 바로 잡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 3:15)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과 힘과 굳은 결의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3

원칙 작은 불꽃이 큰 불이 된다.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마찰이
일어나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오해, 의견
차이, 다양한 개성과 스타일은 마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주의하지
않는다면 사소한 일은 쉽사리 큰 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좋게 생각함으로써 갈등의 불꽃을
끄겠다고 지금 결심하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네 대적과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그와 화해하라.” (제3니파이 12:25)

비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한 것은 그들의 귀에 들어갈 수 있으며, 보통
그렇게 되곤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고,
흔들리지 않는 우정과 포용, 성실과 신뢰와
사랑으로 그와 같은 좋은 점을 발전시키십시오.

4

원칙 최대의 장점은 최대의 약점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은 인생의 어떤 면에서는 잘 다듬어지고
준비되었지만, 이러한 능력에만 의존한다면 그것은
또한 여러분에게 최대의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얻은 능력은 적절한
균형이 깨질 때 자신만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며 자신을 제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잘 지낼 수
없다면 여러분은 실패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이 쌓은 지식을 교회와 여러분의 가족과
직장, 그리고 사회와 우정을 강화시키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은사와 재능과 예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임을 망각할 때, 다시 말해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모사이야서 3:19)에 의존하고 하나님이

생의 모든 은사를 주시는 분임을 망각할 때 우리가 지닌 최대의 장점은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장점이 약점으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만사에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교리와 성약 59:21)해야 합니다.

5 원칙

실패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신앙을 가질 때, 실패는 가장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요한복음 16:33) 그러나 구주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므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수를 통해 배우고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잘 할 수 있었는지 분석하며 더 나아지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패배와 실망이 “잠시” 동안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유익이 될”(교리와 성약 122:4, 7)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앙으로 우리는 “부지런히 찾으라. 항상 기도하라. 또 믿으라. 그리하면 ... 너희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리라.”(교리와 성약 90:24)고 하신 주님의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6 원칙

중요한 것은 경주를 어떻게 출발하느냐, 또는 경주를 하는 동안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결승선을 어떻게 넘느냐이다.

탄자니아 출신의 마라톤 선수 존 스티븐 아크와리는 1968년 하계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그는 경주 내내 피로와 다리 경련, 탈수증과 방향감각의 상실로 고통스러웠지만, 마음속으로부터 한 음성이 계속하라고 외쳤기 때문에 그는 계속했습니다. 그는 기진맥진하여 비틀거리며 맨 마지막 주자로 육상 경기장에 들어왔습니다. 결코 이길 수 없는 경주를 왜 끝까지 완주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조국은 경주에서 출발만 하라고 나를 11,200킬로미터나 떨어진 이곳으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경주를 끝내라고 보낸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필멸의 육신으로 태어나기 위해 이 지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명과 목적을 갖고 왔으며, 그것은 끝까지 견디기 위한 것입니다.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한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그들 모두는 주인을 섬겼고 모두 똑같은 샅을 받았습니다. 어떤 종들이 다른 종들보다 일찍 도착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두 왔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1~16)

청소년 시절에 잘못된 길로 들어갔다고 해서 낙담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서는 과거의 죄나 실수를 종합하여 최종 평점을 낸 영적인 평균 점수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한 자, 그는 용서받으며,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58:42)

그러므로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있지 않다면 그곳에 도달하겠다고 오늘 결심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화점은 우리를 구원해 주는 의식, 즉 침례, 성신을 받음, 씻음, 기름 부음, 엔다우먼트, 인봉에서 맺은 성약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에 따라 매겨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모든 사람과 함께 결승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전진하고 물러서지 말라 -용기를 내라.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또 나아가자.”(교리와 성약 128:22)

7 원칙

“부자가 되고 싶다면 번 돈을 저축하라. 바보라도 돈을 벌 수는 있다. 그러나 현명한 자는 그 돈을 저축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쓴다.”¹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키우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행복은 우리 존재의 목적이며 계획입니다.”² 불행히도 우리는 탐욕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탐욕은 세속적인 것에 대한 노예가 되며 만족할 줄 모르는 욕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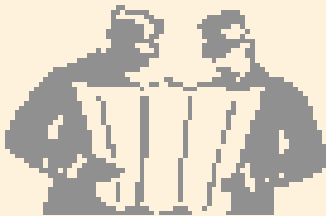
세속적(temporal)이란 말은 “일시적인(temporary)”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또한 일시적인 것은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앞을 내다보십시오. 긴 안목을 가지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십일조와 헌금을 바치십시오. 돈을 저축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수년간 꾸준히 저축해서 얻은 것을 당장 가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늘 자신의 수입 범위 내에서 생활하며 즐길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8

원칙



선택의지의 행사 없이, 또한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서는 주님의 뜻을 알 수 없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적은 노력을 들이거나,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도 성신이 우리의 질문에 답해 줄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올리버 카우드리처럼 우리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간구하기만”(교리와 성약 9:7) 합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때로는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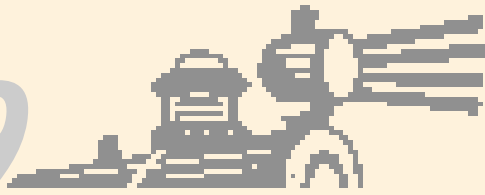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네 생각으로 그것을 연구해야만 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것이 옳은지를 내게 물어야 하니.” (교리와 성약 9:8)

예컨대 영원한 동반자를 선택할 때 우리는 명단을 주님께 제시하고 그분께 결정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데이트를 함으로써 선택의지를 행사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내적인 태도와 외적인 행동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런 후 우리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주님 앞으로 갖고 갑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결정에 책임지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결해 나갈 책임을 지게 됩니다.

9

원칙



변하면 변할수록 그대로이다.

1975년에 저는 브리검 영 대학교 학생들에게 말씀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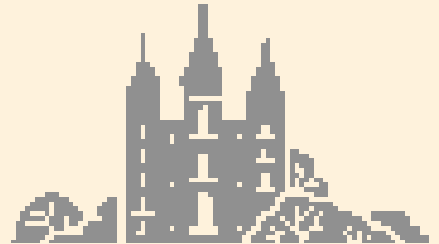
왼손을 들어올리고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오른손을 왼손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의 길은 복음의 길에서 수백 마일이나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후 왼손을 가리키며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이곳에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거의 32년 전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그때보다 더욱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천 마일, 어쩌면 그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건대 교회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의 회원으로서 여러분은 세상의 친구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차이가 더 멀어질 것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보는 눈을 가진 자라면 여러분을 산 위의 빛으로 알아볼 것이며, 그들은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의 빛을 쬐기 위해 이 마지막 날의 어두움을 헤치고 나올 것입니다.

10

원칙



하나님의 성전은 가장 훌륭한 대학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진리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이 가지게 될 가장 귀중한 지식입니다.

성전에 가십시오. 엔다우먼트는 영원한 교과 과정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왜 이 지상에 왔는지를 배우며, 우리가 계명과 성약을 지키면 해의 왕국에서 영생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이 10가지 원칙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간증을 전하고 한 가지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공적인 아들과 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결코 왕국의 것들을 양보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사명에 관한 한 여러분이 복음대로 사는 것으로 인해 절대로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세속적인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영원한 원리를 양보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정당하게 주어지는 영원한 축복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저는 뉴욕에서 자란 소년으로서 약 천 명 정도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단지 두세 명의 교회 회원 중 한 명으로 자랐습니다.



최근에 가진 50번째 동창회에서 반 친구들은 제가 저의 가치관과 신앙에 따라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했습니다. 저는 지혜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여기거나 도덕적인 가치를 범했다면 제가 친구들에게 “내가 믿는 건 이런 거야.”라고 말하며 그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었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제 생애 동안 저는 대학에서, 군대에서 부관으로서, 그리고 전투기 조종사로서, 대학원생으로서, 또는 영업과 마케팅 분야의 전문직에서의 부장 또는 회사 본부 부사장으로서 결코 저의 가치관이나 믿음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쉬웠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쉬운 길을 찾고자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것이 어려웠을까요?

저는 어려운 길도 찾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랬다는 것뿐입니다.

때때로 제 신앙을 의심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신앙에 충실할 때, 그들은 복음에 따라 생활하겠다는 제 결심을 존중해 주었을까요?

모든 경우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면, 모든 부름과 일과 책임을 마치고

영예롭게 돌아온다면, 구주의 이름에 충실하고 그분의 영원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다면, 성신의 빛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여 여러분을 인도하고 안내하며 여러분을 높이 들어 올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말할지 또는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는 경우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누구를 대표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동료들 어떻게 대하고 동반자와 가족을 얼마나 존중하고 공경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널리 퍼지게 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그분의 영의 권고에 유익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독교인의 봉사는 없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여러분은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자신의 경험을 반영해 주는 더 많은 원칙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원칙들을 배우고 그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훌륭한 생활을 하고 원하는 사람이 되며 여러분의 꿈을 지금 이루고 영원한 곳으로 영예롭게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

2003년 8월 14일 브리검 영 대학교 졸업식에서 한 말씀에서 발췌.

주

1. 브리검 영,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 (1997년), 229쪽.
2. *History of the Church*, 5:134.

도 을
저축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수년간 꾸준히
저축해서 얻은 것을 당장
가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안네 그렌체바흐

여 러분이 성장해 온 교회와는 다른 교회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모두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을 지지해 줄까요, 아니면 실망할까요? 가족과의 가까운 관계를 잃게 된다면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이러한 것들은 몇 년 전, 제가 교회에 대해 알아보고 있을 때 직면했던 문제들입니다. 한 친구는 제게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르라고, 주님께서 가족과 친구들의 거부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단순한 신앙으로 저는 앞으로 나아가 2002년 4월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가족 중 유일한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약을 지키고 매일 경전을 읽도록 도와줄 가족도 없으며, 여러분의 간증을 계속 키워 나가도록 해 줄 간단한 활동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의욕을 가지는 것도 여러분 혼자만의 책임입니다. 가족 중 유일한 교회 회원으로서 저는 교회에 완전히 참여하여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고 성전 사업에 집중하며 가족이 언젠가는 교회에 들어오리라는 희망을 결코 잃지 않는 것이 제게 힘이 되어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대 가운데서의 지지

교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저는 한 번도 가족을 크게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저는 가족들이 배신감을 느꼈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입혀서 무척 괴로웠습니다. 저는 제가 꾸준히 교회에 나가는 것이 주님께서 저와 제 가족을 위해 바라시는 것임을 마음속으로 알았기 때문에 계속 교회에 나갔습니다.

개종한 당시 저는 집 근처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방문할 때면 언제나 비난과 모욕을 받았습니다. 제가 선교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자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애니, 네가 선교사로 나간다면 이 할미 마음은 찢어질 게다.” 저는 할머니께 제가 선교 사업을 하라는 특별한 느낌을 받았으며, 봉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교 사업을 위해 준비하는 동안 저는 와드 회원들로부터 위안과 힘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회원이 됨으로써 겪는 생활의 변화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으며 가족의 반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었습니다. 저는 부름과 활동, 그리고 선교사를 돕는 일에 몰두함으로써 좌절감을 무릅쓰고 좀 더 쉽게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저는 뉴욕 주 팔마이라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종종 성스러운 숲에 가서 제 상황에 대해 생각하고 평안을 구하며 앉아 있곤 했습니다.

가 족 중 유일한 교회 회원으로서 저는 복음 안에서 힘이 되어 주는 것들을 몇 가지 찾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봉사함

와드에서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저는 여전히 답답했고 가족들이 저를 오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교회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교회 밖에서 얻은 것이었으며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 무엇도 받아들여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복음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으려 노력했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간의 골은 점점 깊어져 갔고 저는 그것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무렵 저는 버지니아로 선교 사업을 하러 갔고, 가족이 교회에 관심을 보이리라는 희망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족에게 편지를 보내며 저는 계속해서 복음을 나누고자 노력했습니다. 아버지께 선교사를 만나도록 권유한 것이 기억납니다. 아버지는 노골적으로 관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답장을 읽는 것은 제가 선교 사업을 하면서 겪은 가장



와 드 회원들은 가족의 반대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저는 성스러운 숲에 있을 때 제 상황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더욱 큰 평안을 얻었습니다.

힘든 경험 중 하나였지만 그 일은 제게 열심히 선교 사업을 하고 기꺼이 들으려는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겠다는 더욱 큰 동기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누군가의 가족이며, 제가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그 사람의 기도에 답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록 더 이상 전임 선교사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나누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통한 축복

2005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님께서 말씀하기 위해

일어나셨을 때 저는 그분이 이제 말씀하실 내용을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저의 메시지는 교회 개종자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 여러분은 교회에서 소수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이 여러분께 얼마나 많이 의지하시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¹

그분은 개종자들이 자신들의 가족과 복음을 나누려는 노력을 절대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가정 내에서의



저는 비록 더 이상 전임 선교사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나누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 역사 사업과 성전에서의 봉사 또한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줍니다.

선교 사업의 또 하나의 중요한 면으로서 성전 사업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아이어링 장로님의 말씀은 제가 성전 참석과 가족 역사에 대한 목표를 갖도록 해 주었습니다. 저는 성전에 가족 이름을 제출하면서 큰 보람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예기치 않았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저와 장막 저편에 있는 분들과의 관계를 크게 증진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름을 찾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기적을 보았으며 그들의 의식을 수행하는 동안 그들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또 하나의 축복은 제가 선교 사업을 마치고 처음으로 할머니를 만났을 때 왔습니다. 할머니는 성전에 가지고 갈 이름 목록을 제게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또한 할머니의 아버지께서 “물몬의 책”을 읽은 것이 기억나기 때문에 그 책을 읽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물몬경을 읽고 배운 것에 대해 이야기하시려고 매주 제게 전화하십니다.

선교 사업을 떠나기 전, 저는 제가 교회 회원이 되기 전인 1996년에 돌아가신 할머니의 남편이 할머니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도록 노력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 훈련원에 있는 동안 우리 지방부의 장로들이 할아버지의 성전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해의 영광실에 앉아서 저는 저의 모든 가족이 그곳에 함께 있는 모습을 상상하며 감정에 북받쳤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서 우리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계심을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믿습니다.

희망을 품고 계속 나아가

선교 사업이 끝났을 때 어머니가 저를 데리러 오셨는데, 마침 10월 연차 대회가 있던 주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함께 세 번의 연차

대회 모임을 보셨고, 그 모임 내용들이 정말 마음에 드신 나머지 크리스마스 선물로 연차 대회 DVD를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게 있어 희망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해 준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가족 중 교회에 들어오는 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저는 이 생이든 다음 생이든 언젠가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관계가 크게 개선될 수 있었던 것은 제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영의 영향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때 기적을 일으켜 주시며 우리 마음에 의로운 소망들을 갖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저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주신 힘과 도움을 느껴 보았으며, 그분의 참된 교회 안에서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

주

1. “하나로 묶인 마음들”,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77쪽.

여러분이 가족 중에서 유일한 회원일 때

- 여러분의 와드나 지부 회원들에게서 위안과 힘을 찾으십시오.
- 기도를 통해 평안과 인도를 구하십시오.
-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십시오. 모든 사람에게는 가족이 있으며, 여러분이 누군가의 기도에 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 가족 역사 및 성전 사업에 참여하십시오.
- 여러분의 가족이 언젠가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이 좋게 지내기

칠레 산티아고, 파르도 형제의 집에서는 가정의 밤 활동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탁자 위의 사이다병 꼭대기에는 성냥개비들이 높이 쌓여 있습니다. 이제 열여섯 살인 안드레아의 차례가 되자 불안정한 성냥개비 더미 위에 또 하나의 성냥개비를 놓기 위해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그녀의 손을 모든 눈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조심해!” 하고 열세 살인 하비에르가 외치는 소리에 모두가 놀라고 안드레아는 하마터면 흔들거리는 성냥개비 더미를 넘어뜨릴 뻔합니다.

잠시 동안 하비에르 때문에 큰일날 뻔했다고 생각했지만 호흡을 가다듬은 안드레아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웃습니다.

한 지붕 아래에 9명이 함께 살면 때로는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가족이라도 사이 좋게 지낸다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프란시스코와 비비안,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인 안드레아, 프란시스코, 비비안, 하비에르, 세바스찬, 엘리자베스, 오구스틴은 최근에 그들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계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 서로를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운동 경기나 행사, 또는 공연에서 여러분의 형제자매들을 도와주십시오.
- 가능한 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 가정의 밤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 매주 하루는 가족이 함께 무언가를 하는 날로 정하십시오.
- 함께 요리하고 청소하고, 기도하고, 놀며 웃음을 나누십시오.
- 자발적으로 행동하십시오. 미리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함께하는 시간이 생기면 뭔가 즐거운 일을 하십시오.

관계에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 대화할 시간을 내십시오. 가족 평의회 및 부모 자녀간의 접견을 가지십시오.
- 함께 경전을 공부하십시오. 이때 훌륭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함께 TV나 영화를 보는 것도 즐거울 수 있지만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대신해 주지는 못합니다.
 - 마찰이 있을 때는 그 일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중재자가 되어 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에는 봉사가 필요합니다

- 어느 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면 모두가 그 문제를 나누도록 합니다.
- 서로, 특히 여러분과 문제가 있는 상대방을 위해 봉사하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 가족이 함께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 “대저 사람이 자기가 섬기지도 아니하였고, 자기에게 외인이며, 자기 마음의 생각과 의도에서 먼 주인을 어떻게 아느냐?”(모사이사서 5:13) ■



사진 촬영: 매튜 리버; 가족 사진 촬영: 아담 시울슨

마지막 순간의 변화

재키 오먼

내 여동생은 2001년 11월, 심각한 종류의 암이 있다고 진단 받았다. 45세였던 동생은 네 아들의 어머니로, 한 아들은 포르투갈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었다. 동생의 가족뿐만 아니라 애리조나에 있는 그녀의 와드와 스테이크에서도 즉시 그녀를 위해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 그러나 5월 말 무렵, 암과의 투병에서 진 동생은 혼수상태에 빠졌다. 신권 축복과 간절한 기도 후에 우리는 그녀에게서 생명 유지 장치를 떼어 내기로 결정했다. 의사들은 그녀가 곧 운명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8일 후에도 동생의 상태는 그대로였고 길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가 이어졌다.

지난 몇 달은 우리 가족이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이 되었다. 우리는 동생을 사랑했으며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기는 했지만, 때로는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갖기가 어려웠다. 우리는 어쩐지, 우리가 충분한 신앙을 가졌다면 동생이 치료될 것이라 느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의 힘을 의심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우리는 그분의 응답을 받았을 때 매우 당황했고 평안을 느낄 수가 없었다.

유타 주에서 열릴 우리 스테이크 대회는 6월 2일로 계획되어 있었고 지역 칠십인이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다. 스테이크에는 많은 회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회는 두 모임으로

나뉘어졌다. 스테이크의 독신 와드에 참석하고 있던 우리 세 아들들은 오전 모임에 참석하도록 지명을 받았고 나머지 가족은 오후 모임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다. 남편과 나는 가족이 함께 오전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그 결정을 내린 지 얼마 안 되어 남편과 나는 오후 모임에서 기도를 하도록 부탁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변경하였다.

대회의 토요일 저녁 모임 동안, 우리는 한 가지 변경 사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

순간에 칠십인인 엘 휘트니 클레이튼 장로가 지역 칠십인을 대신하여 우리 대회에 참석하도록 지명을 받았던 것이다.

일요일 오후에 클레이튼 장로는 자신의 말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며 말씀을 시작했다. 영이 그에게 그날 참석 중인 한 가족에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나는 즉각 그가 우리 가족을 향해 말씀할 것이라고 느꼈다. 그는 아내가 암으로 진단 받은 한 스테이크 회장에 대해 말씀했다. 가족과 친구들과 스테이크 회원들의 많은 금식과 기도 후에 그녀는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했다.



클레이튼 장로는 자신이 준비한 말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며 말씀을 시작했다. 영이 그에게 그날 참석 중인 한 가족에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런 다음, 클레이튼 장로는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던 중에 아내가 암으로 사망한 다른 스테이크 회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에게 몇몇 어린 자녀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녀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었다. 그녀는 클레이튼 장로의 유일한 처제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특히 마음 아픈 이야기였다.

클레이튼 장로는 때로는 이러한 경우처럼 아무리 큰 신앙이 행사되더라도 응답은 부정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 후 그는 우리 가족이 가장 좋아하는 성구 중 하나가 된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를 읽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클레이튼 장로는 그날 오후,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교리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를 놀라게 한 한 가지 기적이 그날 일어났다. 주님께서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할 생각을 하게 하심으로 그 오후 모임에 우리가 참석하도록 하셨고, 그분의 종들 중에서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한 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도록 방편을 마련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영의 음성을 듣고 그에 따라 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삶을 사는 지혜롭고 순종적인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던 것이다. 우리의 영은 그 경험을 통해 형언할 수 없이 감동 받았다.

다음날 우리는 동생이 세상을 떠났다는

전화를 받았다. 우리는 슬펐지만 동생의 가족을 위해 기도했을 때 이번에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충만한 확신과 함께 감미로운 위로의 영이 찾아왔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그분의 귀한 응답에 감사 드렸다. ■

귀뚜라미를 기억하여

데니스 버크스

나는 1942년 영국에서 어머니, 아버지, 누나가 있는 사랑 많은 가정에서 태어났다. 내가 7살 때 우리는 또 한 명의 가족으로 남자 아기를 축복 받았다. 어머니는 구주를 사랑하셨지만 특정한 교회의 회원은 아니었다. 어머니는 가장 가까운 교회에 참석하시면서 누나와 내게도 참석하도록 권유하시곤 했다. 따라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그분에 대한 나의 신앙을 강화해 줄 교회를 찾기를 바랐다.

하루는 *Buffalo Bill's Wild West Annual*[버펄로 빌의 서부 연감(역자 주: 버펄로 빌은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전설적인 카우보이 임)]이라는 커다란 그림책 한 권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 나는 그 책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당시에는 아마도 내 친구 한 명이

갖고 왔다가 깜빡 잊고 집에 가져가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책은 버펄로 빌과 빌리 더 키드(역자 주: 미국 서부의 무법자로 권총의 명수)의 그림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 그것은 카우보이가 되고 싶어하는 소년에게 중요한 바로 그런 내용이었다. 그 책은 또한 무법의 폭도에 의해 아름다운 도시로부터 추방당해 강제로 수백 킬로미터를 여행하고 서부 광야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세우기 전까지 끝없는 고난을 견디며 박해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그림마다 고난과 신앙에 대한 극적인 이야기를 보여 주었으며, 그 이야기에는 농작물을 먹은 귀뚜라미와 귀뚜라미를 먹은 갈매기에 대한 기록을





보여 주는 그림도 몇 점 있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몇 번 읽은 후에야 그 가난하고 박해 받은 사람들이 어떤 교회의 회원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자 이 교회가 바로 내가 찾던 교회라는 것이 점점 분명해졌다. 나는 그 교회에 가입하고 싶었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한 가지 문제에 봉착했다. 그 이야기의 마지막 그림은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를 묘사하고 있었다. 나는 다른 출처로부터 유타 주가 미국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여행할 가망이 없었던 나는 교회에 가입하려는 계획을 포기해야 했다. 나는 그 교회가 미국 외의 다른 곳에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

그 후로 11년이 지날 때까지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당시 우리 가족은 호주로 이민을 가서 시드니에 정착한 상태였다. 그곳에서 남동생은 새로운 종교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동생은 내 관심을 끈 몇 가지 소책자를 집에 가져왔고 장로들에게 방문해 줄 것을 부탁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위엄 있는 한 쌍의 노인들이 방문하리라 생각하면서 동의했다. 그런데 내 또래의 젊은 남자 두 명이 방문해서 내게 구원의 계획의 기초를 가르쳤을 때 나는 정말 놀랐다. 나는 강한 호기심에 이끌려 일련의 토론 과정을 시작하는 데 동의했다.

나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교회에 가입할 생각은 없었으며 특히 십일조에 대해 배웠을 때는 더욱 그랬다. 그러나 어느 날, 선교사 한 명이 긴

행렬을 이루며 솔트레이크 시티라 부르는 장소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일부 개척자들에게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귀를 쫑긋 세우고 질문하기 시작했다. 이 교회가 귀뚜라미와 갈매기 사건이 있었던 그 교회였던 말인가? 그가 브리검 영을 언급했을 때 나는 즉시 그 이름을 알아들었으며, 내 생의 중대한 갈림길에 도착했음을 깨달았다. 내가 어떤 교회에 가입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교회였다.

십일조에 대한 문제는 지혜의 말씀에 대해 배우면서 해결되었다. 계산해 보니 나는 수입의 10퍼센트를 담배와 술값으로 소비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십일조를 낸다고 해서 내가 재정적으로 안 좋아지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며, 그 돈은 폐를 시켜면 담뱃진으로 채우고 간을 해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용도로 쓰이게 될 것이었다.

한편, 남동생은 어머니께도 그 소책자들을 드렸다. 어머니는 그날 일하러 가시는 동안 기차에서 그 소책자를 읽겠다고 하셨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신 어머니는 교회에 완전히 개종된 상태였다. 침례 받기 전에 일련의 선교사 토론을 공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망하기까지 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모두 교회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남동생이, 일주일 후에는 내가, 또 일주일 후에는 어머니가 침례와 확인을 받음으로써 모두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 아버지는 21년 동안

버티셨지만 1985년에 마침내 회원이 되셨다. 그리고 일년 후에 가족 모두 시드니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나는 솔트레이크시티에 몇 번 다녀왔고 팔마이라, 커틀랜드, 나부에 있는 교회 유적지도 방문했다. 내가 간 모든 장소에서 버펄로 빌의 그림책 이야기를 떠올렸다. 열살 짜리 소년이었던 내 생애 그 책을 가져다주신 주님께 끝없는 감사를 드린다. ■

한 사람에게 한 양동이씩

제임스 더블류 리치

2004년 7월 12일, 나는 새벽 5시 20분에 일어나 늘 하던 대로 창 밖을 내다 보았다. 우리 숙소의 경비는 완전히 잠이 깨 있었다. 한 여자가 경비의 얼굴에 샷대질을 하고 있었고 다른 25명의 여자들이 담장에 기대어 서 있었는데, 모두 한 개 이상의 빈 양동이와 대야를 들고 있었다. 나는 재빨리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그 전날, 인구 10만 명의 도시 티마와 그 주변 지역은 단수가 되었다. 24시간 동안 아무도 물을 공급받지 못했고 사람들은 당황해하기 시작했다. 내가 선교사 훈련원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던 가나 선교사 훈련원에는 커다란 물탱크가 있었는데 우리는 물이 필요할 때마다 그 탱크에서 물을 끌어다 썼기 때문에 문제를 눈치채지 못했었다. 새로운 물은 공급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수조의 물로 계속 생활해 왔던 것이다.

또한 어떤 이유에서인지 같은 구역에 있는 우리 집회소의 야외 수도에도

약간의 물이 남아 있었고, 누군가가 군중에게 물몬들이 물을 갖고 있다고 알린 것이었다. 사람들은 물을 퍼 가기 위해 양동이를 들고 도처에서 모여들고 있었다. 관리인은 나보다 앞서 집회소에 도착했고 사람들을 안으로 들이는 것에 반대했다. 그는 우리의 물이 바닥나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확신했다.

나는 경비와 관리인을 불렀다. 나는 관리인에게 구주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은지 물었다. 나는 그에게 우리의 결정이 가져올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를 고려해 보라고 했다. 우리 수조의 물 역시 곧 바닥나겠지만 이웃의 양동이에 단 한 방울의 물까지 채워 주다가 그렇게 되는 편이 나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도 동의했다. 우리는 문을 열었고, 들어오기 위해 달려드는,

계속 불어나는 군중들 사이에 질서를 세우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한 사람당 한 양동이만 가져가도록 부탁했다. 시간은 이제 6시 15분경이었다. 줄은 길었고 수압이 낮아지긴 했지만, 수도에서는 계속 물이 흘러나왔다.

우리는 물이 곧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다. 도시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물은 나오고 있지 않았다. 우리는 모두에게 무척 목마른 이 사람들을 위해 이 수도에서만은 계속 물이 나오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수도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매우 감사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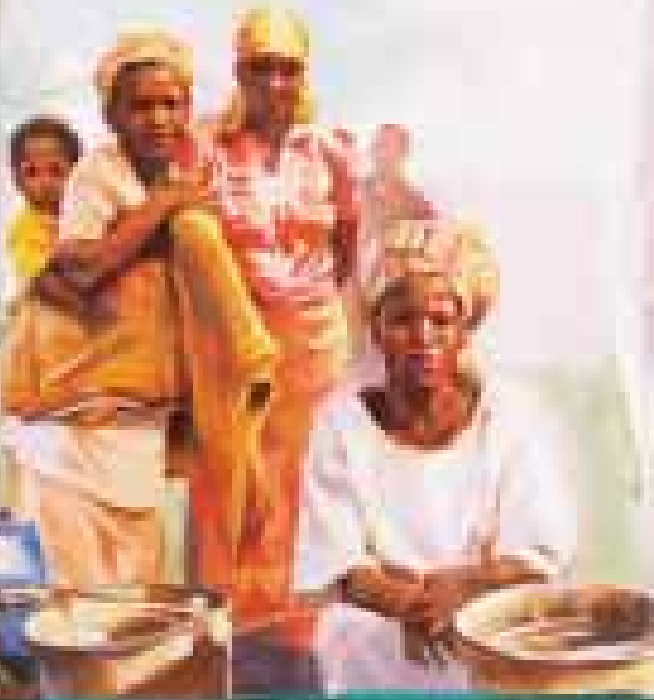
이 위기의 시간 동안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선교사 훈련원의 수조를 점검해

보니 물이 반 정도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 위기가 며칠 동안 지속될 경우, 정말 긴급한 상황을 대비해 물을 저장해 두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뒤에 큰 통을 여러 개 실은 픽업 트럭이

들어왔다. 그것은 티마 종합 병원에서 온 차였다. 그들도 비상 사태를 대비한 대형 저장 탱크가 있었지만 그것은 이미 비어 있었고 그들에게 목마른 환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트럭을 선교사 훈련원 탱크에 대게 하고, 우리의 비상용 물을 그들의 수조에 채웠다. 우리는 그들에게 더 필요하면 다시 오라고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저장고가 바닥날 때까지 나눌 것이었다. 그들은 매우 감사해했다.

그날 오후 3시경, 도시에 물이 다시 공급되었으며 줄을 섰던 사람들은 빈 양동이를 들고 집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좋은 느낌은 아직도 남아 있다. ■

누 군가가
군중에게
물몬들이
물을 갖고 있다고 알린
것이였다. 사람들은 물을
퍼 가기 위해 양동이를
들고 도처에서 모여들고
있었다.



성약을 상기시켜 주는 리아호나

리아호나 잡지는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해 줍니다. 기사를 읽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떠올립니다. 후기 성도의 소리는 우리 모두가 시련과 시험을 받아야 함을 깨닫게 해 줍니다. 저는 모든 일에서 어떻게 인내할지를 배우면서 더 강해짐을 느끼며, 끝까지 견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틴 토르스, 필리핀 라군베이

주님의 음성

리아호나의 기사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경험을 정말 좋아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선지자의 메시지를 가장 좋아하는데, 그 메시지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사들에 대해 감사하며, 이 기사들을 친구들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재클린 베도알, 에콰도르

리아호나의 말씀을 흡족히 취함

학교에서 우리는 여러 잡지와 그 밖의 출판물을 공부해 오라는 숙제를 받았습니다. 다른 잡지는 몇 페이지 읽지

않았지만 리아호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모든 메시지와 소식과 이야기들이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영감과 지시와 권고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읽기란 힘든 일입니다. 리아호나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지 않는 교회 회원은 훌륭한 가치가 있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린 타니에그라, 필리핀

숨막힐 정도로 재미있는 책

저는 리아호나가 도착하는 순간부터 두 시간 만에 다 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읽습니다. 저는 그 잡지에 담긴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리아호나는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도움을 제공하고 우리의 질문에 올바른 답을 줍니다. 그것은 리하이와 그의 가족들에게 그랬던 것만큼 제게도 필요한 도구입니다. 켄턴 엘 쿡 장로의 기사, “세상에 거하되 세상에 속하지 않음”(2006년 2월)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저는 모든 후기 성도들이 리아호나를 통해 오늘날 우리 지도자들과 선지자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열심히 읽기를 바랍니다.

엑토르 이라마인, 아르헨티나

영적인 형제들

저는 러시아어로 된 리아호나 잡지에서 리아호나의 이메일 주소를 찾았습니다. 저는 이 잡지와 선교사들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몰문경을 한 권 가지고 있으며, 리아호나를 읽습니다. 읽는 동안 저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게 됩니다. 저는 것처럼 훌륭한 사람들을 양육한 종교는 마땅히 존경과 찬사를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러시아 정교 신자이지만 우리가 모두 영적인 형제들임을 믿습니다. 올렉 아나톨리예비치 야코블레프, 우크라이나



사진 촬영: 존 스톱프, 모델: 포즈를 취함: 리하이와 그의 가족들, 리아호나 잡지, 2006년 2월호,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 34페이지, 35페이지, 36페이지, 37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 42페이지, 43페이지, 44페이지, 45페이지, 46페이지, 47페이지, 48페이지, 49페이지, 50페이지, 51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 56페이지, 57페이지, 58페이지, 59페이지, 60페이지, 61페이지, 62페이지, 63페이지, 64페이지, 65페이지, 66페이지, 67페이지, 68페이지, 69페이지, 70페이지, 71페이지, 72페이지, 73페이지, 74페이지, 75페이지, 76페이지, 77페이지, 78페이지, 79페이지, 80페이지, 81페이지, 82페이지, 83페이지, 84페이지, 85페이지, 86페이지, 87페이지, 88페이지, 89페이지, 90페이지, 91페이지, 92페이지, 93페이지, 94페이지, 95페이지, 96페이지, 97페이지, 98페이지, 99페이지, 100페이지

기사 요청

여러분은 복음을 나누었던 좋은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회원 선교사가 되기 위해 하신 일에 대한 기사(800자 이내)를 2007년 3월 15일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Liahona, Sharing the Gospel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및 와드와 스테이크 (지부 및 지방부) 명칭을 함께 보내 주십시오. 선정된 분들에게는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친구들



성스러운 빛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파우스트 회장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눈에 빛을 지닐 수
있는지 설명하십니다.

며 해 전, 간호 실습생인 콘스탄스는 사고로
츠 다리를 다친 한 여성을 돕도록
지명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두려움
때문에 병원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콘스탄스가
처음 그 집을 찾았을 때 부상당한 여인은
콘스탄스에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그녀는 콘스탄스에게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다리는 커다란 종기로
뒤덮여 있었고 살의 일부는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치료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콘스탄스는 기도하기로 했으며, 하루 이틀 뒤에 응답이
왔습니다. 다음 방문 때 콘스탄스는 거품을 일으키는
과산화수소를 가지고 갔습니다. 아프게 하는 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이든 그 여성은 그 약을 다리에 발라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좀 더
중요한 치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콘스탄스는 그녀가
입원하면 병원에서는 그녀를 가능한 한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루 이틀 뒤에 그 여성은
병원에 입원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콘스탄스가 그녀를 찾아가자 그녀는 미소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설득시켰어요.” 그런 다음, 전혀 예상치 않았던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에 다니세요?” 콘스탄스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난 당신을 처음
뵈던 날부터 당신이 내게 보내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당신의 얼굴에는 그 종교를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았던 빛이 있었어요. 난 당신을
믿을 수 밖에 없었죠.”

3개월만에 굼뻐던 다리는 깨끗이 나왔습니다.
나이든 그 여성이 살던 지역의 와드 회원들은
그녀의 집을 개축하고 마당도 손질했습니다.
선교사들이 그녀를 만났고 얼마 후에 그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그 간호
실습생의 얼굴에서 빛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에서의 봉사는 우리의 눈에 빛을
가져다줍니다. 얼마나 우리의 얼굴에 구주의
형상을 지녀 보았느냐고 물었습니다.(앨마서 5장
14절 참조)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신 그분의 아들과 개인적인 유대를
맺을 때 우리의 눈과 얼굴은 성스러운 빛을 띠게 됩니다. ●

2005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

생각해 볼 점

1. 병든 여인은 어떻게 콘스탄스가 후기 성도일 것이라고 추측하게 되었는가?
2. 눈과 얼굴에 “성스러운 빛”을 지니기 위해 우리는 누구와 유대를 맺어야 하는가? 그러한 유대는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3. 콘스탄스는 병든 여인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진심 어린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 여인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도울 수 있을지 배우기 위해 콘스탄스는 무엇을 했는가? 우리는 봉사를 더 잘 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신앙으로 주님 따르리

신앙으로 주님 따르리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요한복음 6장 69절)

엘리자베스 리스



대장 따라하기 놀이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규칙은 간단합니다. 대장을 한
명 정해서 그가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이 지상에서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낚시하는 것을 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두고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20절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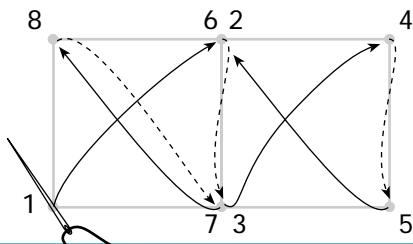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분을 따를 것을 권고하십니다. (교리와 성약 100편 2절
참조) 우리는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그대로 걷지는 않겠지만
그분이 하셨던 일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경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침례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요한복음 6장 69절) 우리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는 똑같은 간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되면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수록 신앙으로 그분을 따르기가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활동

십자수 견본을 만들기 위해 친4쪽에 나와 있는 각 상징을
색칠합니다. 견본을 뜨기 위해서는 모슬린 같은 천 위에 본을



놓고 윤곽을 따라 그립니다. 각 상징마다 원하는
색깔의 자수실 세 가닥을 사용합니다. 어른 한
명에게 각 상징 위에 십자수를 놓는 방법을 보여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림 참조) 자주 보는 장소에
견본을 전시합니다.

주: 이 활동은 복사하거나 베끼거나,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
에서 출력할 수 있다. 영어판은 “Gospel Library”를 클릭한다. 기타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한다.

함께 나누는 시간 제언

1. 낱말스트립 위에 있는 어린이들의 이름과 몇몇 고대
선지자들의 이름을 보여 준다. 이 이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묻는다. 아브라함서 3장 22~24절을 함께 읽고 우리는 전세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모두 함께 살았다고 설명한다. 우리는 경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설명한다. 어린이들에게 교리와 성약 93편 21절을 찾아서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 중 누가 장자인지 찾아보게 한다. 피아노
반주자가 전세에 대한 노래에서 우선 한 소절을 연주한 후 두
소절을 연주하게 한다. 어린이들이 그 노래가 무엇인지 알아맞힐
때까지 계속해서 소절을 더해가며 연주하게 한다. 어린이들이
노래를 맞히고 나면 우리가 지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삶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구절을 가리키며 노래
전체를 부른다. 우리가 전세에서는 모두 다 영의 형제요
자매였다고 설명한다. 우리는 서로를 “형제” 또는 “자매”라고
부른다. 이는 그 명칭들이 서로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관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부른다.

2. 어린이들에게 계획의 몇 가지 예를 보여 준다. 예를 들어
요리법, 설계도, 또는 장난감을 조립하는 방법 등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집이나 과자, 또는 장난감을 만들 때에는 끝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고 하는 것이 최선이다. 우리에게는 계획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발표하셨다. 그것은 구원의 계획이라고 한다. 감독이나 지부
회장의 승인을 받아 전임 선교사나 최근에 귀환한 선교사를
초청하여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47~59쪽)에 있는 구원의 계획을
가르치게 한다. ●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의 생애에서
살았다!

스펜서는 사람들이 서로 가까이 지내는 애리조나의 한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일곱 살 때 그는 근처 목장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얘들아, 우리 언뭇에 들어가 수영하지 않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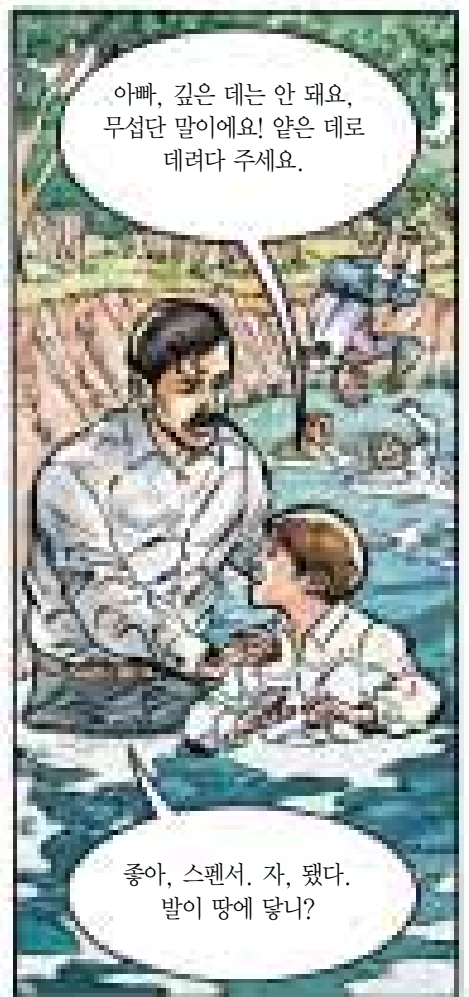
그들은 모두 입을 옷 그대로 수영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스펜서는 아직 수영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빠, 나도 아빠처럼 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얘야, 그렇게 바짝 달라붙지 마라.

아빠, 깊은 데는 안 돼요, 무섭단 말이예요! 얕은 데로 데려다 주세요.



좋아, 스펜서. 자, 됐다. 발이 땅에 닿니?

스펜서는 아버지의 등에서 내려왔고, 아버지는 해엄처 가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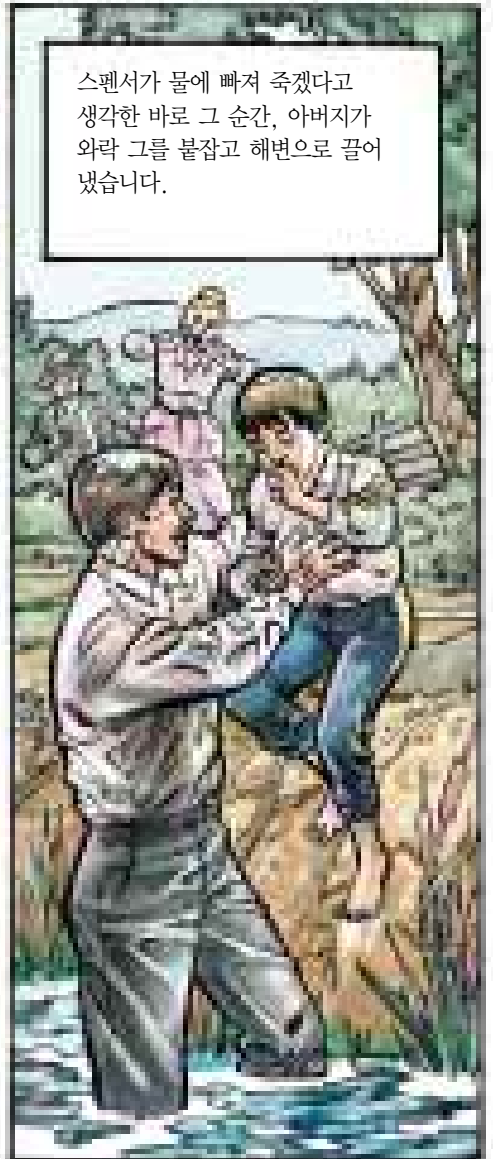
그러나 스펜서는 해변으로 발걸음을 옮기다가 깊은 구덩이에 빠져 버렸습니다.

그는 몸부림치며 발버둥쳤지만 아무도 그가 빠진 것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아, 왜 아무도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못 듣는 걸까?

스펜서가 물에 빠져 죽겠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아버지가 와락 그를 붙잡고 해변으로 끌어 냈습니다.



스펜서는 나중에 수영을 배웠지만 깊은 물에서는 절대로 편안한 마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그가 자라서 지상에서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목숨을 구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Edward L. Kimball and Andrew E. Kimball Jr., Spencer W. Kimball (1977년), 35쪽에서 각색.

무엇을

입어야 할까요?



제니퍼 로즈
교회 잡지

여러분이라면 눈 장화를 신고 더운 해변으로 나가겠어요? 잠옷을 입고 축구 시합에 나가렵니까? 물론 아니겠지요. 이런 옷을 입을 때는 따로 있습니다. 눈사람을 만들거나 잠자리에 들 때와 같이 말이예요.

안토니오와 엘라는 정숙함의 중요성과 여러 가지 다른 활동에 적합한 종류의 옷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이 둘은 해야 하는 모든 일에 대해 생각하면서 일요일에 교회에 갈 때 가장 좋은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맬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전이나 교회에 가서 예배드릴 때, 우리는 평상복을 벗고 더 좋은 옷으로 단장합니다. 이렇게 옷을 갈아 입는 것도 존경을 표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기도의 언어’, 성도의 빛, 1993년 7월호, 15쪽)

친16쪽에 있는 엘라와 안토니오의 사진을 오려 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들 위에서 맞는 위치에 폴로 붙이거나 올려 놓으세요. 안토니오와 엘라가 학교에 갈 때, 운동할 때, 그리고 그 밖의 활동을 할 때 입어야 할 옷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세요. 일요일에 입을 가장 좋은 옷을 남겨 두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많은 어린이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입나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한복음 8:12)

놀라운 일들

오거스토 비.



며칠 전에 저는 수영장이 있는 친구네 집에 놀러갔어요. 친구가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친구에게 조셉

스미스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고 친구는 놀랐습니다. 저는 물몬경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었어요. 친구는 성경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물몬경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물몬경이 없었기 때문에 니파이와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지혜의 말씀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언젠가 저는 친구에게 니이가 들면 담배와 술을 할 것인지 물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혜의 말씀에 대해 가르친 후 저는 다시 물어 보았고, 친구는 이제 술도 담배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가 우리 교회에 오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를 교회에 초대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가 다른 곳에 가기 때문에 친구가 돌아오면 다시 초대할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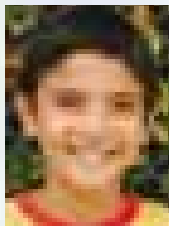
친구는 이런 것들에 대해 배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

오거스토 비., 10세, 아르헨티나



싸움은 안 돼

앨런 에스.



어느 날 친구 두 명이 같은 학년에 있는 한 여자아이 때문에 싸우고 있었습니다. 두 친구는 그 아이가

자신을 좋아했으면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그만!” 하면서 둘을 떼어 냈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서로 상처를 주거나 사이가 멀어지기를 원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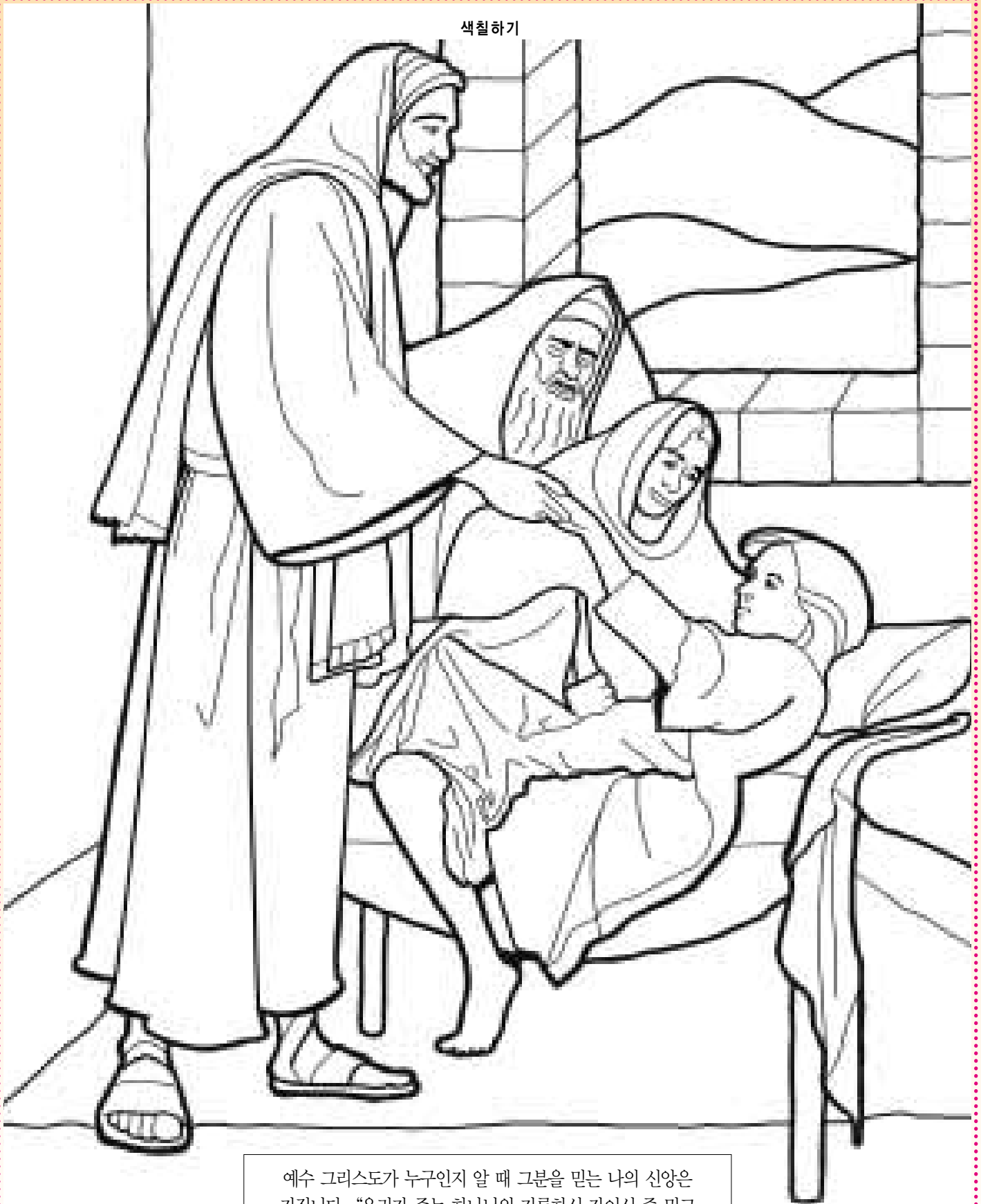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다칠까 봐 염려하지는 않았지만, 둘을 떼어 놓았을 때 친구들은 “네가 뭔데 끼어들어?”라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 둘이 사이 좋게 지내기를 원했고, 예수님께서 서로 친절히 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진정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화해했고, 그 여자아이로 인한 싸움을 그만두었습니다. ●

앨런 에스., 11세, 아르헨티나

색칠하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 때 그분을 믿는 나의 신앙은 커집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요한복음 6:69)

쉬츠 감독님을 지지함





“사람이 ... 예언에 의하여 또 권세 있는 자에 의한 안수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아야 함”
(신앙개조 1:5)

실라 킨드레드
실화에 근거함

“**콜**론 티 슈츠 형제를 새로운 감독으로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손은 재빨리 위로 올라갔다. 나는 슈츠 형제님이 우리의 새 감독님이 되어 신이 났다. 형제님의 딸, 페기는 내 친구였다. 페기가 몇 살 위였지만, 종종 나를 집에서 하는 활동에 초대했다. 슈츠 형제님은 이런 활동에 가끔 나타나 페기와 함께 어떤 댄스 스텝을 보여 주거나 알아맞히기 게임에 참여하기도 했다. 때로는 팝콘을 만들어 주기도 하셨고 잠시 동안 우리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나는 슈츠 형제님을 새로운 감독님으로 지지하는 것이 기뻐했다. 그러나 교회에서 손을 올리고 예배당이 높이 올라간 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 같은 열한 살짜리의 조그만 손이 것처럼 훌륭한 분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처음 했던 일 중 하나는 새로운 감독님을 위해 직접 쿠키를 만드는 데 내 손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엄마는 감독님들이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 때문에 때로는 집에서 식사도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제일 잘 만드는 오트밀 쿠키를 구워 냈다. 나는 딱 맞는 상태가 될 때까지 반죽을 저었다. 그리고는 쿠키가 준비되자 조심스럽게 감독님 댁까지 들고 갔다. 감독님은 정말 기뻐하셨지만 나는 더 도와 드리고 싶었다.

몇 주 후, 나는 페기네 집에서 하는 어떤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페기는 내게 음악을 고르는 책임을 맡겼다. 나는 라디오 다이얼을 돌리면서 적절한 음악이 나오는 방송국을 찾는 데 내 손을 사용했다. 그런 다음 소리가 너무 크지 않도록 볼륨을 낮추었다. 이 집은 감독님의 집이었기 때문에 평화로운 장소가 되도록 돕고 싶었다.

학기가 시작되자 감독님의 가족은 칼라라고 하는 양녀를 함께 살도록 데리고 왔다. 칼라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손을 내밀어 그녀를 환영했다. 나는 칼라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귄 수 있다면 감독님께 도움이 될 것을 알았다.

몇 개월이 흐르자 감독님은 병이 나셨고, 걷기

나는 슈츠 형제님을 새로운

감독님으로 지지하는 것이 기뻐했다. 그러나 교회에서 손을 올리고 예배당이 높이 올라간 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 같은 열한 살짜리의 조그만 손이 것처럼 훌륭한 분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감 독님은
연석 앞에
이르자

잠시 멈추셨는데,
걱정스러워 보이셨다.
나는 감독님이 연석을
넘기에 너무
쇠약하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감독님에게로
달려갔다. 나는 “제
손을 잡으세요. 제가
도와 드릴게요.”라고
말했다.

위해 지팡이를 사용하셔야 했다. 어머니는 감독님이 아프셔서 전보다 우리의 기도와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내 열두 번째 생일이 다가올 무렵 나는 슈츠 감독님과 접견을 했다. 엄마와 나는 함께 교회로 걸어갔고 감독님이 막 차에서 내리셨을 때 도착했다. 감독님은 내게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시고 보도까지 힘겹게 걸어오셨다. 나는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도 감독님이 나와의 접견을 위해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오신 것을 보았다. 그것이 영광스럽게 느껴졌다.

감독님은 연석(번역자 주: 차도와 보도 사이에 놓인 돌) 앞에 이르자 잠시 멈추셨는데, 걱정스러워 보이셨다. 나는 감독님이 연석을 넘기에 너무 쇠약하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감독님에게로 달려갔다.

나는 “제 손을 잡으세요. 제가 도와 드릴게요.”라고 말했다.

그분은 감사하는 태도로 내 손을 잡고 위로 올라오셨다. 나는 감독님보다 먼저 뛰어가 무거운 교회 문을 열어 드렸다.

감독님은, “내가 너를 위해 그렇게 해야

하는 건데,
고맙다.”라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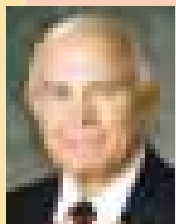
그분은 한숨을 쉬시며 감독실 의자에 천천히 앉으셨다. 그런 다음 나에게 기도를 부탁하셨다. 나는 경건하게 팔짱을 끼고 기도하면서, 감독님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마음

속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을 축복하셔서 힘을 주시기를 간구했다.

기도가 끝났을 때, 감독님은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신 것 같아 보였다. 그분은 의자에 똑바로 앉으셨고, 그분의 눈에서는 빛이 났다. 접견이 끝나자 그분은 힘 있는 악수를

하셨고, 나도 기쁜 마음으로 그 손을 마주 잡았다.

접견을 마치고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내가 감독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 생각했고 그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분임을 알았다. 나는 내 손이 비록 작아도 사랑하는 감독님을 돕고 지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



“감독, 지부 회장, 그리고 보좌들의 직분은 이 교회에서 성스러운 부름입니다. 이러한 직책에 봉사하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이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이분들에게 좀 더 많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감독님, 도와주세요!” 성도의 벗, 1997년 7월호, 24쪽.



어떻게 하면 경전에 대한 간증을 얻을 수 있을까요?

★ 여러분이 교리적 원리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기도할 때, 성신은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을 향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 물문경을 읽을 때 그 책의 첫 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나오는 주요 인물인,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십시오.

★ 여러분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많은 장애물을 만나고 실수도 할 것입니다. 경전의 인도는 여러분이 잘못을 인식하고 필요한 변화를 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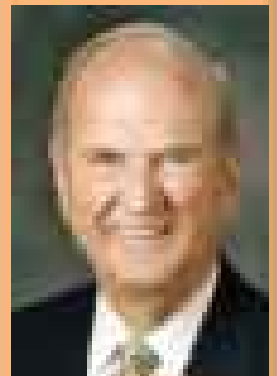
★ 우리는 기쁘게 발견하고 충실히 순종하는 영으로 공부함으로써 경전을 깊이 맛볼 수 있습니다.

★ 물문경은 매우 실질적인 방법으로 개인적인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없애고 싶습니까? 가족 관계를 향상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능력을 키우고 싶습니까? 물문경을 읽으십시오!

★ 물문경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 모든 사람은 그 책의 신성함에 대한 간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경전의 인도에 따라 생활함",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20, 21쪽; "물문경에 대한 간증",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82, 85쪽.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님은
이 주제에 대한
그분의 생각을
나누십니다.

사진 촬영: 크리스티나 스미스,
모델이 포즈를 취함



활동과 유의 사항에 대해서는 친8~친9쪽을 참조하십시오.



사진 제공: 존 엠 헌츠먼 장로



엠 러셀 벨라드 장로(오른쪽)가 선교사 및 회원들과 모임을 가진 12일 간의 유럽 방문 여행 중 동행한 존 엠 헌츠먼 일세 장로 및 피터 헌츠먼 형제와 함께 대통령 궁에서 로버트 코차리안 아르메니아 대통령에게 인사하고 있다.

벨라드 장로, 유럽 지역 성도들과 선교사들을 격려

선 디 스탈, Church News 기자

십 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최근 유럽의 회원들과 선교사들에게 그들이 “복음의 가치관과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훌륭한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으며,] 그 사람들을 잘 가르친다면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에서 봉사하는 일부 선교사들 가운데는 이 지역에서 침례 주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벨라드 장로는, “신앙과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선교사도 가르치고 침례 주는 것이 가능한 영역 밖에 있다는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 선교사들은 교회를 강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교 임지에 들어셔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2006년 8월 17일에 시작한 방문 기간 동안, 벨라드 장로는 유럽 사람들이 교회에 속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념에 이의를 제기하며 유럽 서, 유럽 동, 유럽 중부 지역의 선교부 회장 50명과 몇 차례의 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는 영국 버밍엄,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독일 드레스덴에서 열렸다. 그는 또한 이 지역의 많은 선교사들과 회원들에게 말씀했으며,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스위스에서 열린 그 밖의 회원 모임에서도 말씀했다.

“회원들은 전임 선교사들과 가까워져야 하며, 더 많은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회원들은 선교사들이 가르치고 침례를 줄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선교사들이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의 일 시 텡기 장로와 지역 칠십인 역원인 존 엠 헨츠먼 일세 장로가 벨라드 장로와 동행했다. 칠십인 정원회의 데니스 비 노인슈안더 장로 또한 유럽 동부 지역에서 벨라드 장로와 동행했다.

텡기 장로는 “선교사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잘 교육 받았습니다. 그들은 나의 복음을 전파 하라에 지시된 대로 가르치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회원들은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먼 거리를 여행하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을 단단히 붙들고 있습니다.”

방문 여정의 중요한 일정 가운데 하나는 예레반에 있는 대통령 궁에서 로버트 코차리안 아르메니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이었다. 코차리안 대통령은 헨츠먼 장로의 오랜 친구이다. 이들은 1988년 지진으로 300만 명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사망, 부상 또는 집을 잃게 된 재앙 이후로 헨츠먼 장로가 국가 재건을 위해 많은 인도주의적 기부를 했던 지난 18년 동안 우정을 쌓아 왔다.

국가 언론 매체는 대통령 궁에서 한 시간 동안 진행된 방문을 보도했으며, 헨츠먼 장로는 대통령에게 아르메니아 수도에 지을 암 전문 병원 건립 계획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려 주었다.

교회 지도자들은 도착 시 마중을 나온 아르메니아의 바르탄 오스카니안 외교부 장관의 영접을 받았다. 그는 기욤리시 방문을 포함한 아르메니아에서의 일정 동안 벨라드 장로 및 그 외의 일행과 동행했다. 기욤리시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맞이했으며, 자신들의 학교 건설에 도움을 준 헨츠먼 장로의 기부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교회 지도자들은 또

한 헨츠먼 가족의 기부로 지어진 고층 아파트들을 방문했다. 헨츠먼 장로와 그의 아들 피터 헨츠먼, 그리고 동료 데이비드 혼은 1988년 아르메니아에서 인도주의적 사업을 시작했다. 그들의 노력은 1994년 교회가 공식 인가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아르메니아의 교회 회원 2,000명 중 약 800명이 벨라드 장로 및 텡기 장로와 가진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다.

당시 유럽 동부 지역 회장이었던 노인 슈안더 장로는 “동유럽의 교회는 탄탄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 청소년 및 청년 독신 성인을 위한 활동으로 가득한 놀라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동부 유럽에 복음이 전파된 후 15년 동안 교회 회원 수는

26개 지방부와 1개 스테이크를 구성할 만큼 늘어났습니다.”라고 말했다.

아르메니아는 오랫동안 기독교 국가로 인식되어 왔다. 아르메니아 정교회 회원들은 그들의 시초를 초기 기독교 시대에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한 사도 다대오와 바들로매로 보고 있다.

아르메니아 정교회의 사제들은 벨라드 장로, 텡기 장로, 노인슈안더 장로, 헨츠먼 장로와 그의 아들들을 그들의 성소로 초대하였고, 크트릿 데비지안 신부는 성소의 정원들과 건물들을 안내하면서 건물 기초 중에는 주후 304년에 건립되었다고 여겨지는 것도 있다고 언급했다. ■

2006년 9월 16일자 Church News에서 발췌

새로 부름 받은 신임 성전 회장 및 메이트론

38 개 성전의 새로운 성전 회장들과 부인들 대부분이 2006년 11월 1일, 공식적으로 부름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새로 부름 받은 신임 회장 및 메이트론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서울

전종철, 차영심

가나 아크라

존 시 라이딩, 나오미 엠 라이딩

과테말라 과테말라 시티

벤저민 아이 마르티네스, 메레디스 에이 마르티네스

네바다 라스베가스

에이치 브루스 스투키, 셰릴 시 스투키

뉴 멕시코 앨버커키

이반 지 워덤스, 아넷 와이 워덤스

뉴욕 팔마이라

랄프 이 시바크, 유리엘 와이 시바크

대만 타이페이

제럴드 에이치 워커, 크리스티 시 워커

메사추세츠 보스턴

케네스 지 허친스, 프리실라 지 허친스

멕시코 베라크루즈

제이 래리 메모트, 셸리 더블류 메모트

멕시코 비야에르모사

빈센테 아이 메데로스, 로사리오 디아즈 메데로스

멕시코 에르모시요 소노라

빅토르 엠 세르다, 올란다 세르다

멕시코 와하카

림하이 온터베로스, 베오네 에스 온터베로스

미주리 세인트루이스

웬델 이 브라운, 글리 비 브라운

브라질 레시페

발데미로 스크라바, 마리아 제이 멘데스 스크라바

브라질 상파울루

자이로 마자가르디, 엘리자베스 아이 마자가르디



스웨덴 스톡홀름 성전

브라질 포르토알레그레

페드로 브라사니니, 베타 시 브라사니니

서스캐처원 레지나

데일 이 에반슨, 필리스 티 에반슨

스웨덴 스톡홀름

벵크트 회글룬트, 잉에르 회글룬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엔 얼 데상, 주디스 엠 데상

알버타 카드스톤

도널드 에스 헨슨, 주디스 헨슨

애리조나 메사

에즈라 티 클락, 버지니아 엠 클락

영국 프레스톤

아놀드 존즈, 준 에프 존즈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엔 게일런 홉킨스, 마가렛 시 홉킨스

유타 맨타이

제이 브루스 할리스, 말레인 에스 할리스

유타 몬티셀로

도널드 브이 잭, 셸리 지 잭

유타 마운티폴

에이치 브라이언 리차즈, 린앤 티 리차즈

일본 동경

마사유키 나카노, 미치코 에이 나카노

일본 후쿠오카

류쇼우 나카무라, 노리코 유 나카무라

캘리포니아 레드랜즈

웨인 에이치 브링허스트, 리타 시 브링허스트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리차드 에이치 윙겔, 캐런 에이치 윙겔

코스타리카 산호세

이 제럴드 호스, 조운 지 호스

콜로라도 덴버

데니스 케이 브라운, 캐슬린 에이 브라운

퀘벡 몬트리올

테리 엘 롤린스, 엘레너 엠 롤린스

타히티 파페테

토마스 알 스톤, 다이앤 에스 스톤

텍사스 휴스턴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매리앤 비 브래드포드

필리핀 마닐라

얼 엠 몬슨, 도나 엠 몬슨

호주 브리즈번

터렌스 엘 데이비스, 놀라 와이 데이비스 ■



교회 역사 미술 박물관에서 “윌리와 마틴 회고전, 물론 손수레 개척자들을 기리며”에 전시되었던 작품들이 온라인 전시를 위해 준비되고 있다.

박물관, 전시회 통해 손수레 여정 기념

윌 리와 마틴 손수레 부대를 기리고 손수레로 미국 대평원을 건너 온 첫 번째 이주 15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 “윌리와 마틴 회고전, 물론 손수레 개척자들을 기리며”가 2006년 9월부터 2007년 1월까지 교회 역사 미술 박물관에서 성공적으로 열렸으며 최근 폐막했다.

1856년 유타로 가는 도중 와이오밍의 초원에서 눈보라에 휘말린 윌리와 마틴 손수레 부대를 묘사한 회화와 조각들이 주를 이룬 이번 전시회는 현재 아래의 박물관 웹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관람할 수 있다. (www.lds.org/churchhistory/museum)

박물관의 로버트 데이비스 관장은 “전시회의 거의 모든 라벨에 개척자나 구조자들이 한 말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저는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전해 주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용문들과 예술 작품들은 끔찍한 비극을 이겨내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신앙을 간직한 이 충실한 사람들을 향해 동정심과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전시회는 영국에서 배에 오르는 장면부터 아이오와 및 네브라스카의 눈 내리는 평원을 건너는 장면까지 유타로 향해 갔던 개척자들의 힘든 여정을 따라갔다. 전시회의 마지막 부분은 용감한 구조자들이 지친 손수레 부대 개척자들을 안전하게 솔트레이크시티로 데려갈 때 새롭게 솟아난 희망을 묘사했다.



스티븐 마크 바틀로뮤의 작품, 레드 버드에서 눈속에 걸린

스티븐 마크 바틀로뮤의 작품은 그의 고조모가 눈 속에서 나무를 모으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글렌 호킨스의 작품은 그의 조상 앤 주얼 로울리가 일곱 자녀의 도움을 받아 손수레를 끌고 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2006년은 첫 번째 손수레 부대가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한 지 150주년 되는 기념비적인 해였으며, 새 전시회는 이를 기념한 것이었다. 그들이 처했던 고난에 대해 고든 비 헝클리 회장은 2006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들의 신앙은 우리의 유산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우리가 누리는 편안함에 대해 그들이 치른 대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산을 옮기는 신앙”,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84쪽)

이번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한 작가들 중에는 윌리와 마틴 부대 개척자와 그들을 구조한 사람들의 직계 자손도 있다.

스티븐 마크 바톨로뮤의 그림은 그의 고조모와 고조모의 언니가 십대였던 시절, 눈 속에서 나무를 주워 모으는 모습을 보여 준다. 그는 조사를 통해 이 소녀들이 데블스 게이트라는 곳에서 구출되기 전까지 초원을 건너는 내내 가족이 소유

한 두 개의 손수레 중 하나를 끌고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화가 글렌 호킨스는 윌리 부대에서 일곱 자녀와 함께 여행하며 그들의 도움을

받아 눈 속에서 손수레를 끌고 갔던 미망인인 그의 조상, 앤 주얼 로울리를 그렸다. ■

회원들, 올리버 카우드리의 200번째 생일 기념

알 스콧 로이드, *Church News* 기자

몰 문경의 세 증인 중 한 명인 올리버 카우드리가 버몬트 주의 뉴잉글랜드 마을, 웰즈에서 태어난 것은 200년 전인 1806년 10월 3일이었다. 지역 교회 회원들과 주민들은 9월 23일, 한 감리교 교회에 모여 브리검 영 대학교 교회 역사학 교수와 버몬트 주 몬트펠리어 스테이크 회장의 강연을 들으며 그날을 기념했다.

기념 행사는 마을의 공원에서 열릴 계획이었으나, 비가 온 관계로 교회에서 가질 수밖에 없었다. 참석자 가운데는 그

감리교회의 데이비드 아담스 목사와 론 브레머 시장이 있었다.

“올리버는 버몬트에서 세 가지 기본적인 것, 즉 읽기, 쓰기, 산수를 배웠습니다. 그가 버몬트를 떠났을 때 그는 그와 다른 세 가지, 즉 회복, 계시, 화합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라고 교회 역사 및 교리 교수인 프레드 이 우즈는 말했다.

올리버 카우드리가 데이비드 휘트머, 마틴 해리스와 함께 발표한, 천사가 나타나 몰문경 원판을 보여 준 거룩한 시현에



올리버 카우드리

대해 증언하는 공동 성명은 몰몬경의 서문에 나온다. 올리버는 회복된 교회의 “두 번째 장로”(교리와 성약 20:3 참조)였으며, 여섯 명의 교회 설립자 중 한 명이었다고 우즈 형제는 말했다.

“올리버는 몰몬경을 [번역할 때] 조셉 스미스의 서기로 일했습니다. 몰몬경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몰몬 역사 및 신학에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의 역사와 종교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 사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이어 말했다.

우즈 형제는 올리버가 1828년부터 1829년까지 뉴욕 주 맨체스터 읍에서 학교 교사로서 스미스 가족과 하숙한 것, 그 후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만나게 된 것,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을 회복할 때 함께 있었던 것, 그리고 몰몬경의 번역과 출판에 있어 하

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을 포함하여 그의 삶에 있었던 일들을 되짚었다.

우즈 형제는 교리와 성약 6편을 인용하며, 올리버는 “재물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7절)라는 권고를 받았고, 그리하여 그가 “많은 선을 행하는 방편이 [될]” 것이며, 그의 간구하는 마음이 계시를 받게 했다고 언급했다.(14~17절, 21~24절)

“올리버는 누구나 어느 정도는 그러하듯, 보편적인 죄인 교만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1838년 4월, 교회의 조직을 지지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 여러 이유로 파문을 당했습니다.”라고 우즈 형제는 말했다.

우즈 형제는 칠십인이었던 지 호머 더햄 장로(1911년~1985년)가 기록한 다음 말을 인용했다. “토지의 매각에서부터 일어난 오해와 얽혀, 거짓된 것이었을 수도 있던 증언 때문에 그는 결국 교회 평의회에 출석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우즈 형제는 “고소를 한 사람들 모두 회원 자격을 잃었으며, 이후 교회의 적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후 10년간 올리버는 주로 오하이오 주 티핀에서 변호사로 일했고, 그 기간 동안 법정에서 그의 반대편 변호사와 몰몬경에 대한 간증에 관한 문제로 맞서야 했던 경우를 포함하여 단 한 번도 몰몬경에 대해 그가 쓴 간증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우즈 형제는 말했다.

우즈 형제는 “6년이라는 기간 동안(1842년~1848년), 브리검 영의 형이자 올리버 카우드리의 처남인 피니어스 영(피니어스 영은 올리버의 이복 여동생 루시와 결혼했다)은 지속적으로 올리버에게 편지를 쓰고 그를 방문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동시에, 교회 지도자들은 올리

버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일지를 간직하고 있던 윌라드 리차드는 1843년 봄에 조셉 스미스에게서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편지를 써서 이제 충분히 겸손해졌는지, 돌아올 준비가 되었는지 물어 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은 올리버에게 다른 여러 가지 말과 함께, ‘당신의 형제들은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 형제님도 알고 계시듯이, 형제님의 거처는 시온이어야 합니다’라는 말이 담긴, 양떼로 돌아오라는 권유가 담긴 편지를 보냈습니다.”

올리버는 정중하게 답했지만, 그는 그의 파문과 관련된 정황이 사실대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교회 회원 자격을 되찾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우즈 형제는 말했다.

1848년 10월, 피니어스 영은 카우드리 가족을 위스콘신 주 엘크혼으로 초대했다고 우즈 형제는 말했다. 그는 아이오와 주 케인스빌에서 열리는 교회의 지역 대회에 참석하도록 올리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여섯 자녀 중 유일하게 살아 남은 아이를 그곳에 데려갔다. 그 모임에서 올리버는 2,000명에 가까운 회중에게 말했으며, 교회 회원 자격을 요청했다. 다음 몇 주 내에 그는 교회의 온전한 회원 자격을 다시 갖게 되었으며 1848년 11월 12일에 다시 침례 받았다.

솔트레이크 계곡 지역의 교회에 참여하고, 유실수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던 올리버는 먼저 아내의 친정인 휘트머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아내를 미주리 주 리치몬드 데리고 갔다. 올리버는 악화된 건강으로 인해 서부로 여행할 수 없었으며, 결국 1850년 3월 3일에 숨을 거두었다. 우즈 형제는 올리

버의 처남인 데이비드 휘트머가 다음과 같이 한 말을 인용하였다. “올리버는 제가 보아 온 사람 중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서 죽었습니다. 가족들과 악수를 하고 아내와 딸에게 입맞춤을 한 후 그는 ‘이제 난 마지막으로 늙게 되었어. 난 내 구주께 가는 거야.’라고 말한 직후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죽었습니다.” ■

2006년 9월 30일자 Church News에서 발췌:
올리버 카우드리 인생에 관한 역사적 자료는 올리버 카우드리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06년 9월 23일 버몬트 주 웰스에서 프레드 이우즈가 한 말씀, “하나님에게서 온 것보다 무슨 더 큰 증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에서 발췌.

• 한 가지 표준을 선정하여 그에 대해 공부하고, 그에 따라 생활할 목표를 세운다.

올해 대회의 주제는 교리와 성약 121편 45절에서 발췌한 2007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로써 “쉬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네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리니”이다.

위성 또는 인터넷을 포함한 방송에 대한 정보는 지역 지도자들에게 연락하거나 www.lds.org/broadcast에 접속하여 받을 수 있다. ■

본부 청년 회장단, 청년들에게 모임 준비 권유

본부 청년 회장단은 교회의 청년들과 그들의 부모,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돌아오는 2007년 3월 24일에 열릴 연례 청년 총회를 위해 스스로를 준비하라고 권유했다.

본부 청년 지도자들은 모임 계획을 발표하며, “청년 총회는 제일회장단이 교회의 청년들인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여러분이 제일회장단과 본부 청년 회장단들의 격려를 받고 그들의 간증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라고 말했다.

12세부터 18세 연령의 수십만 청년들이 매년 위성 방송에 참여하기 위해 전세계 곳곳의 집회소에 모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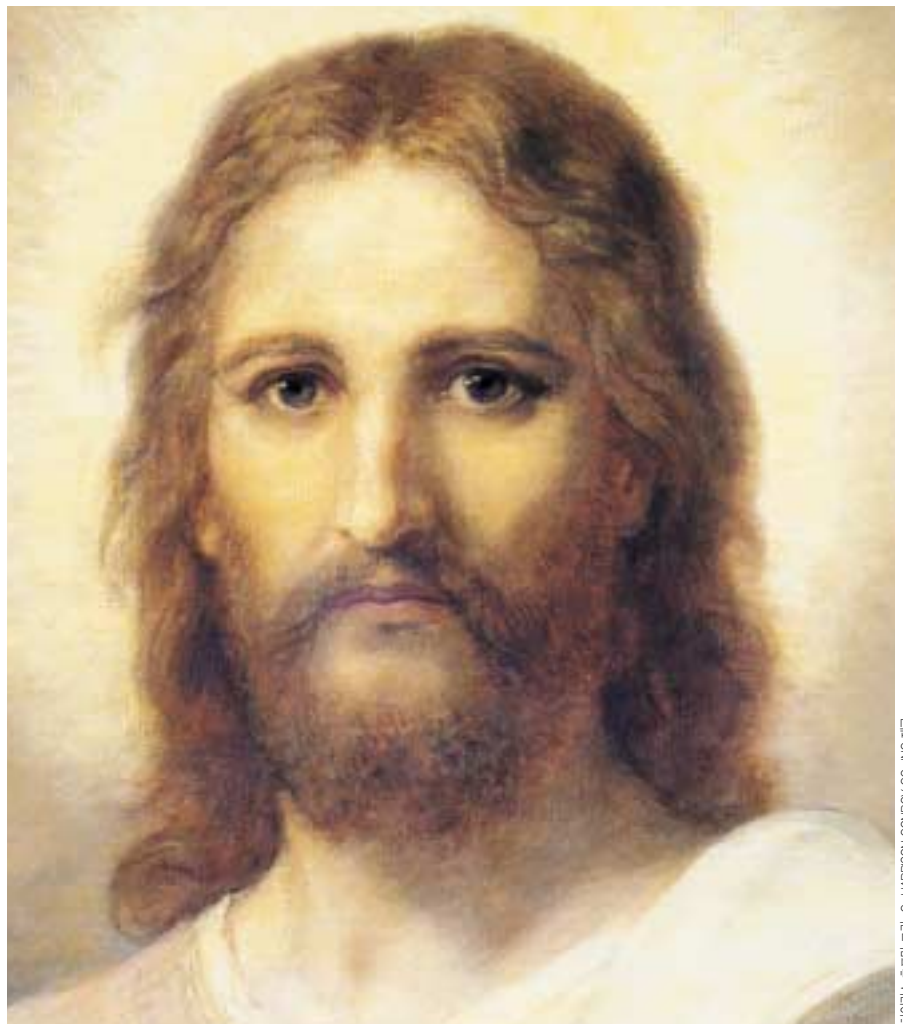
올해 본부 청년 회장단은 청년들에게 다음과 같은 일을 하여 영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준비하라고 권유했다.

- 교리와 성약 121:45를 외운다.
- “후기의 시은 청년으로서”를 외운다.(리아호나, 2000년 4월호, 24쪽)
- 신앙개조 제13조를 공부한다.

또한 본부 청년 회장단은 청년들이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를 읽고 다음 중 한 가지를 하도록 권고했다.

- 성신과 관련된 각 참조 성구에 동그라미를 친다.

- 책자에서 찾을 수 있는 약속들을 표시한다.



2007년 청년 총회는 구주에 초점을 둘 것이다.

2007년 2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초등학교 지도자들이 리아호나 2007년 2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제언이다. 이러한 제언에 해당하는 공과와 유의 사항과 활동에 대해서는 이번 호 어린이란의 친4쪽과 친5쪽에 있는 “나 신앙으로 주님 따르리”를 참조한다.

1. 지구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는 전시물을 준비한다. 동물, 꽃, 식물, 음식 등의 사진을 보여 줄 수 있다.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한다. 피아노 반주자가 경건한 노래를 연주하는 동안 꽃 한 송이를 돌려가며 어린이들에게 꽃을 주의 깊게 보라고 한다. 어린이들에게 “누가 이 꽃을 만들었을까요?”라고 묻는다. (예수 그리스도-꽃은 창조의 일부이다.) “예수님께서 왜 이 꽃을 만드셨을까요?”라고 묻는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에게 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권유한다.

각 어린이에게 종이와 크레용을 나누어 준다. 피아노 반주자가 조용히 연주하는 동안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창조물 중 하나를 그려 보라고 한다. 어린이들이 그리기를 마치면 초등학교 교실에 그림들을 전시한다.

2. 어린이들에게 기적이 무엇인지 물어 본다. (기적은 항상 논리적으로는 설명 되지 않는, 놀랍거나 희한한 일이다.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준다.) 어린이들에게 기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의 예를 말해 보라고 한다. 밤에 지지 않는 해, 매일 아침 땅 위에 나타난 만나 등이 그 예이다. 니파이후서 27:23을 찾아본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점과 우리의 신앙에 따라 역사하신다는 점을 알려 준다.

어린이들을 네 그룹으로 나눈다. 초등학교 모임 며칠 전에 네 명의 초등학교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지상에서 행하신 기적 중 한 가지에 대해 토론하라고 한다. 예를 들어, 주님께서 열 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일(누가복음 17:12~19 참조), 맹인을 고치신 일(마가복음 8:22~26) 등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네 개의 정거장(교사-가장 중요한 부름 [1999년] 179쪽 “정거장” 참조)을 만들고, 어린이들에게 각 정거장을 돌라고 한다. 각 지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권능을 보이며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기적을 행하셨다고 설명하도록 부탁한다. 각 지도자에게 구주에 대한 간증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한다.

3. 노래 발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리아호나, 1997년 12월호, 친4쪽). 각 절에 담긴 이야기에 집중하며 몇 주에 걸쳐 이 노래를 가르칠 수도 있다. 어린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다. 각 그룹에게 악보 오른쪽 밑에 있는 경전 구절 중 처음 세 구절, 즉 마태복음 3:16~17, 제3니파이 11:6~8, 조셉 스미스-역사 1:17을 배정한다. 어린이들에게 각 구절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들

어 보라고 한다. 이 구절들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을 소개하시며 그에 대해 간증하신다. 노래의 마지막 줄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부분을 노래한다. 어린이들에게 여러분을 따라 그 줄을 몇 차례 부르도록 한다. 첫 번째로 읽었던 경전 구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는다.(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셨다.) 1절을 부르는 동안 복음 그림 패킷 208번(예수님을 침례 주는 침례 요한)을 보여 준다. 여러분이 마지막 줄을 부를 때 어린이들이 함께 부르도록 한다. 어린이들도 가사 전체를 다 부르며 노래를 반복한다. 두 번째 경전 구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 본다.(예수님께서 니파이인들에게 나타나셨다.)

여러분이 2절을 부르는 동안 복음 그림 패킷 315(예수님이 니파이인들에게 나타나시다)를 보여 준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마지막 줄을 부를 때 어린이들도 함께 부르도록 한다. 마지막 경전 구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 본다.(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다.) 여러분이 3절을 부르는 동안 복음 그림 패킷 403(첫번째 시현)을 보여 준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마지막 줄을 부를 때 어린이들도 함께 부르게 한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목소리만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분께서 바로 그곳에 계셨다. 모든 어린이들이 교리와 성약 18:34~36을 펴도록 한다. 어린이들에게 귀 기울여 듣고 다음 질문에 답하도록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 마지막 절을 부른다. ■

감사드립니다

이용환 장로
지역 칠십인

지난 한 해 전국 각지를 다니며 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미천한 몸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종으로 부름을 받아 전국 각지의 성도들을 만나 뵈 수 있었던 것은 세계 참으로 영광스럽고 축복받은 일이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전해진 지 어언 50년 세월이 흐른 지금 이 땅에는 주님의 복음이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교회 건물은 날로 아름다워지고 그 속에서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생활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단정히 차려입고 성찬을 돌리는 청소년 형제들, 졸린 눈을 비비며 새벽 세미나리에 참석하는 청소년들과 그들을 데리고 오는 아버지, 어머니 또한 교사들, 네다섯 아이들을 달고 다니며 돌보느라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는 어머니들, 선교사로 나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젊은 형제자매들, 자녀들이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부모님과 이에 서슴없이 따르는 자녀들, 자매와 아이들만 교회에 나오면서도 세 자녀 네 자녀를 선교사로 보내는 참으로 충실하고 용감한 어머니들, 형제가 교회에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던 염원을 몇십 년 만에 이룬 자매님의 행복해하는 모습, 그 동안 썩힌 속을 속죄라도 하듯 너털웃음 짓는 착한 남편의 모습, 참된 복음의 기쁨을 깨닫고 눈물짓는 새로운 회원님들, 늦은 나이에 복음의 참됨을 깨닫고 완전히 변하신 연로한 회원님들, 교회에 새로 들어온 회원들을 위하여 복음 원리반 시간에 사랑을 준비하거나 따뜻한 차를 준비하여 참된 복음의 단맛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는 복음 원리반 교사와 도우미들, 온갖 세상적인 어려움을 무릅쓰고 교회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계신 신권 형제님들과 자매님들, 회원들의 복리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수고하고 계시는 감독/지부 회장님들과 스테이크/지방부 회장님들,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가 만나 성전 인봉 의식을 받고 행복해하는 신혼 부부들, 밤새 버스를 타고 와서 성전 의식에 참여하는 참으로 충실한 회원들과 이들을 환한 웃음으로 맞이하는 성전 봉사자와 성전 선교사님들, 모든 봉사에서 벗어나 젊은이들을 묵묵히 돕고 있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

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들입니까? 이 아름다운 분들로 인하여 제 가슴은 감사한 마음으로 벅차오릅니다. 때로는 감사함으로 눈물도 납니다. 참되고 아름다운 복음을 한 사람에게라



도 더 전해주려고 애쓰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을 돕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들을 친 자녀 이상으로 보살피는 선교부 회장님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해 주고 세상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화평을 주며,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하며, 하나님의 참된 존재를 알게 해 주고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

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그분들이 주신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약속받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지상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다음 세상에서 모든 가족이 함께 만나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도 알게 해 줍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입니까?

이 아름다운 복음을 가족, 친척, 친구,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나누면 우리의 복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교회에 가지 않을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 단순한 한마디 말이 사람의 일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크신 축복을 받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님께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신 대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딤후 6:17~18)가 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이 땅에 주님의 성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전에 좀 더 자주 간다면 더 큰 축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성전에 다니다 보면 내 스스로가 변하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게 됩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대리 의식은 돌아가신 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내 스스로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길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원리는 참으로 오묘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한 해는 회원 한 분 한 분이 더욱 발전하고 축복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사랑하
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
드립니다. 아멘. ■



“체험! 청소년 모임의 열기 속으로”

‘부산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는가? 바다? 칼칼한 사투리? 수산 시장? 물론 그것들도 유명하지만 부산 앞바다의 출렁이는 파도처럼 생기 넘치는 청소년들이야 말로 부산의, 부산 스테이크의 자랑거리다. 부산 스테이크의 청소년들이 함께 모였던 싱싱하고 활기 넘치는 현장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준비!”

부산 스테이크 청소년 합동 모임을 찾은 날은 가랑비가 축축히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내리는 비와 쌀쌀한 날씨에도 아랑곳없이 부산 스테이크 온천와드 마당에는 “준비”를 외치는 청소년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가득했다. ‘준비’라는 구호는 스카우트의 전통적인 인사법. 이날의 부산 스테이크 청소년 합동 모임은 스카우트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스카우트 단복을 깔끔하게 입고 베레모까지 맞춰 쓴 청소년들의 모습은 단정하면서도 힘 있어 보였다.

부산에서는 스테이크의 모든 청소년들이 스카우트 활동을 하던 때가 있었다. 교회 행사가 있을 때 안내를 담당하던 것도 스카우트 대원들의 몫이었고 상호 향상 모임도 모두 스카우트 활동으로 진행되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카우트 활동은 점점 쇠퇴했고, 서서히 그 맥이 끊겨갔다. 적어도 지난 해 초까지는 그랬다. 정확히 2006년 7월부터 부산 스테이크에서는 청소년 합동 상호 향상 모임의 일환으로 스카우트 활동을 부활시켰다. “청소년들, 그중에서도 특히 청남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달성 의무상 프로그램을 잘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끝에 스카우트 모임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온천와드 감독이자 스카우트의 훈육 위원장이기도 한 정원몽 감독의 말이다. 부산 스테이크의 지도자들과 청소년 역원들은 상호 향상 모임을 활성화하고 청남들의 하나님의 의무상 달성 프로그램을 독려할 방법에 대해 오랫동안 고심해 왔다고 한다. 그러던 차에 스카우트 활동을 떠올리게 되었고, 교회의 가치관과 스카우트 활동의 긍정적인 면을 부합한 새로운 스카우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새롭고 즐거운 활동

청소년들의 열의 때문이었을까? 아침부터 내리던 가랑비는 개회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때쯤 거짓말처럼 그쳐 버렸



다. 청소년들은 맑은 하늘만큼이나 밝은 표정으로 대나무 조각 하나씩을 받아 톱을 사용해 직접 자르기 시작했다. 이날의 활동은 ‘대나무통 밥’과 ‘꼬치구이’ 만들기. 청소년들이 좋아 할만하고 하나님의 의무상 달성 프로그램에도 해당되는 스카우트 활동을 찾던 끝에 나온 결과물이 바로 이날의 활동이었다. 청소년들은 생전 처음 해 보는 톱질에도 힘든 줄 모르고 마냥

재미있어했다. 상대방의 대나무를 잡아 톱질을 도와주고 대나무 안에 넣는 쌀과 물의 양을 서로 의논하는 청소년들의 얼굴에는 새로운 활동에 대한 흥분과 즐거움이 가득했다. 서로 돕던 청소년들처럼 어깨를 나란히 한 채 익어가는 대나무통 밥 반대편에선 진한 연기와 함께 꼬치구이가 익어가고 있었다. 꼬챙이에 닭과 돼지고기를 꿰고 숯불을 지피는 일도 청소년들의 몫.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청소년 역원들의 세심한 도움 아래 ‘이 순간이 아니면’ 절대 해 볼 수 없는 경험을, 청소년들은 그렇게 열심히 누리고 있었다.

스카우트 활동을 다시 시작한 지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앞으로 이뤄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청소년들의 참여를 높이는 것도 그렇고, 꾸준히 스카우트 활동을 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목표다. 그런 가운데 부산 스테이크의 지도자와 청소년 역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목표는 “스카우트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선교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후기 성도로 살아가는 데 “힘과 자신감을 얻도록 해 주는 것”이다. 그런 목표를 위해서 부산 스테이크의 지도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있고, 기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나무 향이 배인 대나무통 밥은 그야말로 꿀맛이었다. 김치를 적하니 엇고 한 손에는 꼬치구이를 든 청소년들의 표정은 무척 행복해 보였다. 모임 시작 전, 삼삼오오 모여 시험과 숙제에

대한 걱정, 그리고 모임 후 학원에 갈 걱정을 하던 청소년들의 어두운 표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다시 또, “준비!”

이날 활동에 참석한 부산 스테이크 연산 와드의 최우용 형제. 최 형제는 현재 고3으로 지난 해 3월 침례를 받았다. 침례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최 형제는 이미 회원이었던 이모를 본받기 위해 기꺼이 침례의 물가로 나아갔다. 침례 받게 된 계기가 이모라면 최 형제를 여태껏 교회에 머무르게 한 힘은 바로 ‘친구’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최 형제에게 더욱 소중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합동 모임은 최 형제에게 무척 특별하다. “스카우트 활동을 통해서 쉽게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청소년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신앙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최 형제의 말처럼 모여서 웃고 즐기는 부산 스테이크 청소년들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보였다.

스카우트 활동의 의의에 관한 질문에 스테이크 회장단에서 봉사하고 있는 우일암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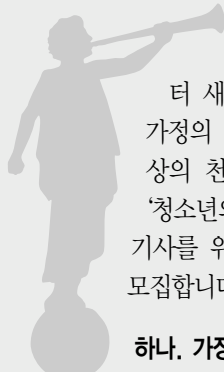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같이 모인다는 것이 가장 좋은 점입니다. 앞으로 저희 부산 스테이크에서는 스카우트 활동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하고, 또한 청소년들이 더 좋아할 만한 활동을 찾기 위해 계속 ‘준비’ 중입니다.”

밥과 꼬치구이를 말끔히 비우고 뒷정리까지 마친 다음에야 스

카우트 활동은 끝났다. 몇몇 청년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상 완수 책자를 펼쳐서 작성하고 역원들을 찾아 확인 받기에 바빴다. 또 몇몇은 농구공을 들고 농구대로 달려갔다. 지도자들과 청소년 역원들은 벌써 다음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 의논하고 있었다. 청소년과 역원들이 함께 어울리고, 교회가 청소년들의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한 모습은 분명,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었다.

부산 스테이크의 스카우트 활동이 아직 걸음마 단계이고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와 도달해야 할 목표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전히 ‘준비’ 중인 지도자들과 환하게 웃으며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품게 되었다.

부산 스테이크 전체에 “준비”라고 외치는 청소년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문자 그대로 스카우트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모두가 선교 사업을 ‘준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모 집 합 니 다

리아호나 지역 소식에서는 2007년부터 새로운 연재물을 계획 중입니다. 후기 성도 가정의 따뜻하고 진솔한 모습을 다룬 ‘가정은 지상의 천국’과 자라나는 보배인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가 바로 그것입니다. 두 기사를 위해 후기 성도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모집합니다.

하나, 가정은 지상의 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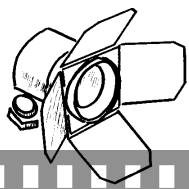
주님의 복음 안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취재 대상입니다. 꾸준한 가정의 밤을 하는 이야기, 가족이 모두 개종한 이야기,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사는 이야기 그리고 그 외에도 특별한 사연이 담긴 여러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둘,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올해 리아호나 지역 소식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주제가 바로 ‘청소년’입니다. 후기 성도 청소년으로서의 ‘자신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취재 대상입니다. 상호 향상회에 대한 이야기, 세미나리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의무상 달성 프로그램이나 청년 개인 발전 기록부에 대한 이야기 등을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

우편: 서울시 성동 우체국 사서함 22호
한국 관리 본부 리아호나 담당자 앞(우편 번호 133-600)
팩스: 02-2235-1395
이메일: leemh@ldschurch.org (이민희)
문의 전화: 02-2232-1441 (내선 번호 562)



제1회 서울 패전트



2006년 12월 25일, '제1회 서울 패전트'의 막이 올랐다. 공연 준비를 위해 쏟아 부었던 시간과 열정이 성탄의 밤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공연 시작 전부터 서울 스테이크 청운 와드에는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많은 관객이 자리했다. 몇몇 사람들은 공연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진풍경이 연출되는 가운데 저녁 7시가 되자 청운 와드 활동실과 예배실을 가로 지른 무대 위에 한 점의 조명이 떨어졌다. 연극 '한 사람을 위한 여행'의 시작이었다.

'패전트'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공연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 하지만 한국에서 '제1회 서울 패전트'라는 이름을 걸고 공연이 열리기까지는 좀 더 많은 사연이 있었다. 2004년 7월, 배동철 서울 스테이크 회장은 미국의 '쿠모라 패전트'를 관람하러 갔고, 거기서 연출을 맡고 있던 김영순 자매를 만나 한국에서의 공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서울 패전트의 첫 태동이었다. 2년 후인 2006년 11월, 김영순 자매가 휴가차 한국을 방문했고 배동철 회장과 조만구 서울 선교부 회장을 다시 만나면서 패전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그리고 12월 25일 공연까지 이르렀다. 전투 장면 등 장난 조역들까지 합해서 100여명이 넘는 대인원이 등장하는 연극이 불과 한 달 만에 완성된 것이다. 그야말로 기적이었다.

엘마와 엠울레크의 선교 사업을 다룬 '한 사람을 위한 여행'은 연극이 무대에 올려지기까지의 과정만큼이나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이었다. 미국에서 직접 공수해 온 잘 만들어진 의상들은 극에 사실감을 더했고,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무는 연출은 연극에 대한 몰입을 높였다. 배우들의 연기도 칭찬할 만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단지 '형제님'이나 '자매님'에 불과했던 배우들은 피나는 연습을 통해 각자 '엘마'와 '엠울레크' 그리고 '판사' '제사장' '길비아' 등 극 중 배역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바뀌어 있었다. 관객들의 호응도 대단했다. 관객들은 연극이 공연되던 2시간 동안 마치 몰몬경 시대로 시간 여행이라도 한 것만 같았다고 입을 모았다. 엘마와 엠울레크가 감옥에서 탈출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끝으로 청운 와드 활동실에는 다시 어둠이 찾아왔다. 패전트의 막이 내린 것이다.

제대로 된 시설에서 패전트를 선보이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시설과 조명 팀'의 이현수 형제는 "이번을 계기로 우리 성도들

의 문화 전통이 시작되었으면 합니다."라고 공연 후의 소감을 밝혔다. 주인공인 '엘마' 역을 맡아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윤정찬 형제는 짧은 시간 안에 패전트를 준비한 것을, 조셉 스미스가 짧은 시간에 번역을 했던 일에 비유하며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다"고 말했다. 공연이 끝난 후, 누구보다 행복한 표정이었던 연출가 김영순 자매는 성공적인 공연의 공을 모두 출연진과 스태프들, 그리고 조만구 회장과 배동철 회장에게 돌렸다. "그분들이 없었으면 이번 공연은 할 수 없었습니다." 김영순 자매의 말처럼 '제1회 서울 패전트'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 여러 출연진과 스태프들, 그리고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던 지도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조만구 회장은 이번 패전트의 가장 큰 수확이 바로 "준비했던 사람들이 얻은 자신감"이라고 말하며 박수를 보냈다.

그렇다. 서울 패전트가 가져다준 것은 한국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의 큰 공연을 해냈다는 자신감과 다음 공연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았다는 바로 그 점일 것이다. 사람들은 이제 제2회 서울 패전트를 생각하고 있다. "이번 공연을 기회로 한국에서도 제대로 된 멋진 패전트가 공연되어 '예수가 온 땅의 구주'라는 몰몬경 이야기를 살아 있는 감동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관람하고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는 배동철 회장의 말처럼 서울 패전트가 한국의 후기 성도를 대표

하는 문화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 ■



전주 스테이크 건물 헌납식

지난 12월 17일 전주 스테이크에서는 스테이크 건물 헌납식이 있었다. 전주 지역의 모든 성도들의 염원 속에 2005년 5월부터 시작된 공사는 1년 6개월이 흐른 2006년 11월에 끝났고, 이번 헌납식을 통해 새 건물의 아름답고 영적인 모습이 일반에 공개됐다.



댄스 시범, 청소년들의 클래식 기타 연주, 몰몬경 속의 내용을 소재로 한 연극, 전주 와드 원광대 국악과 교수로 있는 남상숙 자매와 외부 전문 연주자들의 한국 음악 합주 등의 연이은 공연은 참석한 이들에게 많은 감흥을 주었다. 공연 마지막을 장식한 초등회 연합 합창은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고원용 회장과 지역 칠십인 이용환

뜻 깊은 헌납식을 맞아 전주에서는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무려 일주일 동안 '신축 건물 일반 공개' 및 '선교 전시회,' 그리고 '노년의 모임' 등 여러 행사들이 열렸다.

전주 스테이크 건물은 건축 전부터 많은 지도자와 회원들의 관심을 끌었기에 축제와도 같았던 일주일 간의 모임 동안 교회 내의 여러 지도자와 유명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먼저 12일 저녁에는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미남 형제가 초청 연사로 나와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고, 14일 저녁에는 "행복한 영어"라는 주제로 국제 변호사이자 방송인인 하일 형제의 강연회가 있었다. 두 강연회 모두 수많은 회원과 구도자로 성황을 이뤘고, 영어와 친숙해질 수 있는 비법은 물론이고 살면서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등을 소개하며 자연스레 교회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이 되었다.

11일부터 14일까지는 전임 선교사들을 주축으로 대대적인 선교 전시회가 열렸다. 선교사들과 청년 독신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무료로 음료수를 나누어 주며 복음을 소개했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열정 덕분에 스테이크 건물 헌납식 관련 행사 동안에 많은 구도자들이 참석할 수 있었다.

15일 밤에는 리셉션이 있었다. 이날 모임에서는 회원들이 준비한 음악 공연 및 영상 자료 시청을 하는 가운데 교회 지도자들을 비롯해 전주 지역의 저명한 인사들을 초대하여 지난 30년 동안의 전주 지역 교회 발전 과정과 현황을 소개하고, 전주 지역에서의 교회 발전을 위해 협조를 구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16일에는 '문화의 밤'이 있었다. 화려하고 우아했던 부채춤과 신명 났던 농악, 그리고 광주 외국인학교 '챔버 오케스트라'의 크리스마스 캐럴 합주 등이 전주의 밤을 빛냈다. 그 밖에도 난타 공연, 스포츠

장로를 비롯해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어린이들과 함께 노래를 불러 감동을 더했다.

공연에 참가한 인원만도 200명이 넘었던 '문화의 밤'에는 400명이 넘는 많은 관람객들이 참석하여 새로운 건물의 아름다움과 수용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17일 대망의 헌납식 아침, 새로운 건물에서는 고원용 장로 회장 부부와 넬로우 대전 선교부 회장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전주 와드와 중앙 와드의 합동 성찬식이 있었다. 성찬식을 마친 후에는 스테이크 합동 침례식을 가졌다. 헌납 행사에 맞춰 기다려왔던 많은 개종자들이 함께 침례의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회원들의 축하와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이어 열린 마지막 행사인 4시 헌납식에서는 고원용 회장의 특별 요청으로 전주 지역 최초의 교회 회원이자 개척자였던 박주인 형제의 간증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오랜 신앙 생활 동안 쌓아온 간증과 전주 지역에 대한 사랑을 전했던 박 형제의 말씀은 회원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박주인 형제의 간증 후 고원용 회장은 축하와 권고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나누고 헌납 기도를 끝으로 길고도 행복했던 일주일간의 모든 헌납 행사가 막을 내렸다. 전주의 모든 지역이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일주일이었다. ■



“교회에서 배운 대로”

차를 주차할 때 언제나 마주치게 되는 장애 인 주차 구역, 건물의 출입구에서 가장 가깝게 그어져 있는 그곳을 항상 무심히 지나쳤다. 고궁이나 공원 입구에서 대여해 주고 있는 유모차를 보면서 참 편리하겠다는 생각만 하고는 그냥 지나쳤다. 하지만 이제 꼭 누군가를 떠올리게 될 것 같다. 서울 북 스테이크 신촌 와드의 진경섭 형제. 두 가지 모두를 제안한 공무원이자 감독단으로 봉사하고 있는 신권 지도자다. 진 형제를 만나고 왔다.



30회 청백봉사상 수상 중인 진경섭 형제

진경섭 형제는 지난 11월 29일 ‘30회 청백봉사상’을 수상했다. 그 옛날 청백리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제정된 청백봉사상은 공직 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그렇기 때문에 청백봉사상 수상은 공무원들에게 최고의 영예다. 하지만 떠들썩한 세간의 평가와 달리 수상자인 진 형제는 겸손하고 담담했다. “20년 남짓한 시간 동안 교회에서 가르침 받은 그대로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 가르침대로 생활하고 일했기 때문에 받은 상이라는 말이다.

진 형제는 중학교 3학년 때 형을 따라 개종했다. 청소년과 청년 시절을 교회에서 보내면서 그는 복음과 일치하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선교 사업 후, 1989년부터 그의 ‘남다른’ 공무원 생활이 시작됐다. 공무원들의 위세가 아직 대단하던 그 시절, 진경섭 형제는 민원인들에게 먼저 고개를 숙이고 보다 많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이었다. 그 결과가 바로 장애인 주차 구역과 고궁에서의 유모차 대여 등의 여러 정책 제안. 거주지 동사무소에서만 변경할 수 있었던 주민등록증 관련 규정을 전국 어디서나 변경할 수 있게 한 최근의 제안까지 그는 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신앙생활에 대한 간증과 지도자로부터 배운 것들을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감독이 접견을 통해 회원을 도와주는 것처럼 주민이 원하기 전에 먼저 파악해서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진 형제는 봉사하는 자세가 몸에 밴 듯 했다. 신촌 와드에서의 인터뷰 도중 한 형제가 들어와서 뭔가를 찾자 그는 바로 몸을

일으켜 도움을 줬다. 지역 주민과 국민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정책들을 꾸준히 생각해 내는 것도 그의 봉사 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는 수년 간 개인적으로 불우 이웃을 돕고 있다. 청백봉사상을 수상하며 받은 상금도 투병 중인 동료들을 위해 모두 쾌척했다. 그의 봉사 정신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역시나 “교회에서 배운 것.” 진경섭 형제는 도무지 다른 대답을 할 줄 모른다. 무엇

이든 교회에서 배운 것이고 또 그것을 실천할 뿐이다. 그것이 바로 진경섭 형제의 삶이다.

그의 말을 빌자면 그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은 축복”을 받았다. 마포구청에서 주는 ‘제안왕’ 상에다가 남들은 한 번 받기도 힘들다는 세 번의 장관 표창, 그리고 이번의 청백봉사상까지 언뜻 폼아 봐도 고개가 끄덕여진다. 하지만 진 형제가 말하는 축복은 다른 곳에 있다. “근무하면서 도움을 드렸던 분들이 가끔 찾아옵니다. 일전에는 어떤 분이 임종 전에 전화를 하셔서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진경섭 형제는 이번 수상으로 인해 승진을 했다. 물론 기쁜 일이지만, 그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주님의 면전에서 승진하는 것이다. “행동 하나하나가 교회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나중에 주님 곁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편하고 기쁜 마음으로 ‘귀환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 형제가 전하는 간증이다.

천상병 시인의 시 ‘귀천’의 마지막 연은 이렇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진경섭 형제가 주님께 전할 귀환 보고를 상상해 본다.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그 모든 삶이 당신께 배운 그대로였다고 말하는 진 형제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는 지금도 여러 가지 정책 제안과 봉사 활동을 계획 중이다. 그 모든 일도 역시나 “교회에서 배운 대로” ■

‘제4회 전국 청년 지도자 훈련 모임’

1월 5일과 6일 양일 동안 증평군에 있는 ‘증평 유스 호스텔’에서 ‘제4회 전국 청년 지도자 훈련 모임’이 있었다. 한국의 5개 종교 교육원 산하에 있는 청년 독신 지도자 69명이 모인 이번 모임은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고원용 장로의 감리로 진행되었다. 민혜기 교육 기구 대표와 지역 칠십인 이용환 장로는 개회사를 통해 각각 “사람에게 집중하는 지도력을 배울 것”과 “교회의 지도력은 경쟁의 지도력이 아니라 화평의 지도력”이란 말을 전하며 모임의 주제이기도 한 지도력에 대해 강조했다.

첫째 날은 ‘지도력의 원리’를 배우는 훈련 시간들로 짜여졌다. 광주 종교 교육원 조용현 교수의 “여러분은 지도자입니다.”란 힘찬 선언으로 시작된 훈련은 평의회 원리에 대한 세미나 후 그 원리를 직접 적용해 보는 그룹별 토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뒤이은 훈련 시간에는 각자 역할 분담을 해야 하는 활동을 통해 위임의 원리에 대해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훈련 뒤에는 지난 11월에 있었던 ‘제1회 전국 청년 독신 문화 축제’에 대한 평가회가 있었고 저녁에는 서로의 우정을 확인하는 무도회 시간이 있었다.

둘째 날이자 모임의 마지막 날이었던 6일 오전에는 ‘제2회 전국 청년 문화 축제’에 대한 제언 및 토의가 있었고 지도력의 원리를 개인에게 적용해 보는 토론

시간이 뒤를 이었다. 이번 훈련 모임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제2회 전국 청년 문화 축제’는 ‘영상제’라는 이름으로 각 종교 교육원 별로 한 편 이상의 영상물을 준비해서 발표하는 새로운 형식의 모임으로 계획되었고, 담당은 서울 서 종교 교육원으로 결정되었다. 고원용 회장은 이 같은 결정 사항을 전달하며 “여러 만남과 어울림을 통해 청년 지도자들이 발전하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부산 종교 교육원 독신 송년 무도회

12월 25일,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이 의미 있는 날에 부산 종교 교육원에서 ‘바운티풀 축제 & 송년 무도회’ 모임을 가졌다.

부산 서 지방부

청소년 송년 무도회 - 2006년 12월 30일 부산 서 지방부에서는 청소년 송년 무도회가 있었다.

성인 송년 모임 - 2006년 12월 16일 부산 서 지방부에서는 송평중 부산 선교부 회장의 감리로 ‘성인 송년 모임’이 진행되었다.

서울 남 스테이크

성탄 축하 영상 음악회 -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을 채워 준 아름다운 음악회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스테이크 센터에서 있었다.

전국 독신 무도회

12월 30일 경희 대학교 네오 르네상스관에서는 ‘전국 독신 송년 무도회’가 있었다.



사진 촬영: 양정후 형제

서울 북 스테이크

기혼 성인 송년 파티 - 12월 30일 청년 독신들의 주관 하에 ‘2006년 기혼 성인 송년 파티’가 있었다.

스테이크 합창제 - 11월 25일 녹번와드에서 ‘서울 북 스테이크 합창제’가 열렸다.

수원 스테이크

동계 청소년 대회 - 2007년 1월 5일부터 6일까지 평창 국립 청소년 수련원에서 동계 청소년 대회가 있었다.

전주 스테이크

동계 청소년 대회 - 2007. 1월 4일과 5일 전주 스테이크에서는 ‘동계 청소년 대회’ 및 ‘새로운 시작’ 모임이 있었다. ■



사진 촬영: 유성주 형제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282기 14명



강한글
순천 지방부
순천 지부
서울 선교부



김중현
인천 스테이크
부평 와드
부산 선교부



김민준
전주 스테이크
전주 와드
서울 서 선교부



김희재
서울 북 스테이크
신촌 와드
대전 선교부



김선미
부산 서 지방부
영도 지부
대전 선교부



남윤정
수원 스테이크
신동 와드
부산 선교부



김아람
제주 지방부
제주 지부
서울 서 선교부



마현석
대구 스테이크
대명 와드
서울 선교부



백선일
수원 스테이크
평택 와드
부산 선교부



임은솔
서울 북 스테이크
신촌 와드
대전 선교부



이다래
강서 스테이크
화곡 와드
대전 선교부



임재홍
광주 스테이크
풍향 와드
서울 서 선교부



정예임
마산 스테이크
통영 와드
대전 선교부



최제원
강서 스테이크
부천 와드
서울 선교부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인천 스테이크
만수 와드 감독: 한규태(전임: 임정록)

제3회 영어 용변 대회

청소년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돕고, 글로벌 마인드를 심어 주기 위한 '영어 용변 대회'가 올해도 열립니다. 영어에 관심 있고 재능 있는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대회 요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선 일시: 2007년 4월 28일(토) 오후 2시

주제: 봉사 (원고는 본인의 창작물이어야 함)

제한 시간: 초·중등부 3분, 고등부 5분

장소: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

1. 참가 자격

한국 국적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으로 해외 체류 기간의 합이 6개월 이하인 자.

2. 참가 방법

각 스테이크/지방부 별 예선을 실시, 본선 진출자로 선발된 학생들은 용변 원고와 육성 녹음 테이프를 3월 10일까지 한국공보위원회로 제출

3. 시상 내역

〈초등부〉

최우수상: 1명, 상장과 부상

우수상: 1명, 상장과 부상

장려상: 5명 내외, 상장과 부상

〈중등부〉

최우수상: 1명, 상장과 BYU Hawaii Campus

영어 연수 과정 3주 무료 연수 (항공료 포함)

우수상: 1명, 상장과 BYU Hawaii Campus

영어 연수 과정 3주 무료 연수 (항공료

본인부담)

장려상: 5명 내외, 상장과 부상

〈고등부〉

최우수상: 1명, 상장과 BYU Hawaii Campus 영어 연수 과정 3주 무료 연수 (항공료 포함)

우수상: 1명, 상장과 BYU Hawaii Campus 영어 연수 과정 3주 무료 연수 (항공료 본인 부담)

장려상: 5명 내외, 상장과 부상

